

## 3. 가해자(생존자)

최중석 - 특공대장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김동환 - 대원 인천시 강화군 관청리  
 박창성 - 대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 4. 피학살자 현황

구씨 77세(여), 김덕임 39세(여), 서화석 1세(남), 오천용(남), 부인(여), 며느리들(여), 최진국(남), 부인(여), 윤기항(남)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양민으로 약 300명을 웃돌 것이라 하나 유족과 연고자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 5. 유족회 활동 내용

1993. 10. 03 - 의정부 장암아파트 최중석 방문. 양민학살에 대해 물었으나 전면 부인하고 향토 사수만 했고 사람은 한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1993. 10. 04 - 강화 박창성은 못 만나고, 강화 문화원에서 특공대 역할관련 책자 보았음.
1993. 10. 05 - 강화읍 관청리 김동환(가해자)을 만나서 자기들이 활동한 모든 일과 가족들을 죽이고 행동한 것을 다 털어놓았다. 우리 어머니도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1995. 08. 20 - 강화읍 관청리 곡물검사소 옆에 사는 임귀술(90세)할머니가 증언함.
1995. 08. 21 - 임귀술 할머니를 만나고 김동환도 만나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었다.
1995. 10. 16 - MBC PD수첩의 PD와 만남.
1995. 10. 17 - PD일행과 강화 갯벌에서 인터뷰와 촬영을 했으나 방영은 무산됨
1996. 03. 18 - 옥계, 갑곶 돛대 현장답사
1996. 12. 09 - 박용중(당시 특공대 감찰 부장)을 만났으나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면담무산.
1996. - 강화 천주교회 신부님께 유족 찾기에 관련해 협조 요청.
1999. 01. 22 - 『말』지 기자와 최중석 방문했으나 모든 것을 부인해서 보도 무산.

1999. 05. 21 - 『말』지 기자와 김동환 만남.
1999. 06. 02 - 『말』지 기자와 김동환 만나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때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고개 숙이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1999. 07 - 『말』지 7월호에 처음으로 학살내용 보도.
1999. 07. 07 - 강화 신부님과 2000년 1월 6일날 합동 위령 미사하기도 함의.
1999. 12. 19 - 학살현장 유족들과 함께 답사.
2000. 01. 04 - 10시 합동 위령 미사 준비 완료.
2000. 01. 06 - 10시 위령미사 집전
2000. 03. 01 - 유족회 총무와 최중석 만남.

언론에 보도되기 전 전면 부인하던 최중석은 그때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특공대 일을 하면서 매일 일지를 썼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실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동환은 서류를 태워 버렸다고도 하고 누구에게 주었다고도 한다. 두 사람의 말은 일치하지 않았고 최중석은 그 후 양민 학살과 관련하여 대구 교도소에서 3개월을 복역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청방(청년 방위대)의 지원도 받았고 군부대들과 경찰에서도 협조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 완강히 부인만 하던 그가 위령제 신문 보도와 『말』지 기사를 보고 살아 있는 가해자들과 상의해서 말을 하겠다고 하여 나중에 만나자고 하였다.

2000. 01. 06 - CBC 생방송전화 대담. 그 당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을 전화로 약 40여분 방송함.

## ▶ 조 사(弔詞)

1950년 우리 나라의 비극인 6.25동란, 1951. 1·4후퇴, 이 천주의 비극은 300만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1,000만의 이산가족을 산출해 냈습니다. 여기 강화 향토방위 특공대에 의해 희생된 양민들, 저의 할머니, 어머니, 한 살 박이 저의 동생도 이때 희생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남매를 데리고 살림밖에는 아무 것도 안 하셨지요, 아버지는 교육청의 장학사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인민군들은 강화를 장악하고 말았지요. 피난 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공 시절을 보내고 9·28수복, 1·4후퇴를 겪으며 어머니와 아기가 희생되니 남은 5남매 아이들은 줄지에 고아가 되었고, 큰집으로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던 중 77세된 할머니도 특공대에 의해 길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만행이 어디 또 있단 말입니까. 정당방위가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가진 젊은 야수들은 무기력하고 겁에 질린 양민을 그것도 갓난아기를 업은 부녀자를 학살한 것입니다. 1950년 10월에 이 대통령은 단심이라도 재판을 거쳐 처리하라고 공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생명들을 마구 짓밟고 때리고 굶기고 끝내는 1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갑곶 선착장과 옥계 갯벌에서 학살했지요. 가해자의 말에 의하면 그 후 약 300명 가량을 해안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후 유족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여 49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정적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밝은 햇살아래 그들의 억울한 죽음과, 오명과 유족들의 한과 누명을 벗고, 씻어서 용서와 화해로써 앞으로의 삶을 열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불쌍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건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유족들도 고통에 접어들어 시급합니다. 역사는 바로 알아야 하며 진실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땅에 묻혔다면 유골이라도 수습할 수 있으련만 밤바다 그 춥고 차가운 물에 그토록 가셔야 했던 말입니까? 어머니는 집 앞에서 놀던 나를 치켜 안으시며 이런 것들이 불쌍하지! 하시던 말씀이 엇그제 같고 지금도 들려 오는 듯 합니다. 꿈에라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주면 먹고 안주면 굶어야 하는 네 살 박이,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을 어린 저를 두고 어이 떠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오늘의 저는 곳곳이 살고 있습니다. 훌륭하셨던 부모님의 교훈으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을 기원하며 하늘나라에 계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 불쌍한 영령들이시여

(갑곶 선착장 옥계갯벌 양민학살 그 영령들에게 바치는 시)

서영선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잊는 것은 편하다고  
항상 맴도는 말

눈과 귀를 잃어버린 지  
어언 49년  
잊는 것은 편하다고  
너무 잘 알지만  
왜 이렇게 다시, 또 다시

무서운 밤바다 검은 파도  
속으로 묻혀버린 이름  
몇 백의 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쏟려가고 밀려오고  
여기 이 무서운 해안에  
버려진 영령들이시여

아기를 업은 채 마루에서  
마당에서 안방에서  
죄명도 재판도 없이  
“그저 너는 죽어라”  
한마디에 숨 한번 크게 못 쉬고  
사랑하는 아이들 이름 한번  
못 부른 채 가야 했던  
억울한 영령들이시여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아무 것도 한 것 없고  
살림 한 것밖에 없다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 없다 했지만  
 굴비처럼 엮어 끌고 가면서  
 저기 바다에 한국 군함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애러다가 파리보다 못하게 죽여서  
 여기 검은 물 속에  
 패대기쳤던 것이다.  
 좌익이 무엇이며 우익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이며 이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텃밭이나 가꾸고 우물에  
 물이나 길어 나르던 아녀자들  
 아무 감정도 없다면서  
 왜 죽었나요  
 영웅 심리에서 젊은 혈기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하며  
 죄 없는 사람 죽었나요

역사는 진실로 남아야 하고  
 통한은 밝은 햇살이 씻어줄 것입니다.  
 얼마나 춥고 시장하셨습니까  
 얼마나 빛이 그립고 억울하셨습니까  
 억울한 누명 오명을 덮으시고 얼마나 떨리셨습니까

영령들이시여  
 떨어지는 낙엽도 예쁜  
 국화도 고운 목소리의 이름모를  
 새들도 부드러운 바람도  
 순백의 흰 눈도 당신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영령들이시여  
 천주의 한 접어두시고  
 고이고이  
 잠드소서  
 하느님 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소서

## ●전남나주지역 - 이상계 회장

(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진상

#### 1. 발생

- (1) 일시 : 1951년 1월 20일
- (2) 장소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상류 자갈밭

#### 2. 학살 당시 상황과 가해자

##### (1) 사건 개요

1950년 11월 쯤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가 함평군 월야, 해보면의 빨치산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양민 524명을 학살

##### (2) 경과

##### ◇ 나주시 세지면으로 이동

1951년 1월 20일 영산포를 경유하여 세지면쪽으로 진군해 왔다. 이유는 세지면을 진주한다는 것이었다. 함께 온 사람은 면장, 구국연맹회원, 청년단, 유지들과 경찰과 4명으로, 진주를 환영한다는 뜻이었다. 일행중 한 사람이던 구국연맹 소속 강길만씨(세지면 오봉리)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이 들어오면서 마을 입구에서 마주친 민간인 3명을 죽여버렸다고 한다.

##### ◇ 동창, 섬말주민을 동창교 밑으로 불러모음

군인들이 마을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총, 칼로 위협했다. 그리고 “강연이 있으니 모두 동창교 밑으로 모이시오”하면서 동창교 밑으로 집결시켰다.

##### ◇ 모이게 한 이유

당시 군인들은 동창마을에 빨갱이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진군, 마을사람들을 집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빨갱이나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 버린 이후였고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와 관련이 없거나 떳떳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다.

◇ 군중들을 분리하여 대상자를 가려냄

마을 주민들이 모이자 이들중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를 가려내고 군, 경가족을 나오도록 했다. 군인들이 대열을 돌아다니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작업을 통해 130여명을 가려내어 이들을 만봉천이 흐르는 다리 위쪽의 300평 가량의 밭으로 끌고 갔다.

◇ 무자비한 학살

군인들은 청장년들을 동창교위 300평의 밭에 6열 횡대로 줄을 세워놓고 6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불과 5분만에 96명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노인들을 불러내 시체를 한 곳으로 모은 뒤 확인사살까지 하였다.(정태균씨가 현장옆에 있는 신복여관에서 현장을 목격함)

또 이들은 당시 국민학교 교사 박영만씨 부인 노점숙씨가 업고 있던 아기가 울자 당시 8개월된 아기를 씹죽였으며 이내 인근 논밭에서 영농준비를 하는 주민 40여명을 모두 총살시켰다.

◇ 학살동기의 모호함에 대해

국군이 왜 세지면에 와서 이같은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참가했던 김종만씨(서울 거주)를 찾으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 출신의 김순모씨가 군대에 갔을 때 각 부대에서 전입해 온 병사들이 모였다고 한다. 당시 그 부대는 20사단 61연대 2대대 본부중대(통신병)이었다. 11사단에서 온 김종만씨는 김순모씨가 나주에서 왔다고 하자 동창사건을 자기들이 자행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알 수 있었다.

3. 피 학살자 현황

- (1) 피학살 총 인원 : 136명(노약자-4명, 여자-5명, 어린이-1명 포함)
- (2) 피학살자의 성격 : 양민

4. 유족회 활동내용

-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내용 : 미실시
- (2)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 청원서 그리고 입법청원 등 : 199년 2월 25일 국회청원서 제출 (청원서 별첨)
- (3)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 미청구

(4) 헌법소원 제출 : 미제출

(5) 피해보고서나 책자발행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백서발간, 자료수집중(2001년 초 백서발간예정)

(6) 관련 언론보도 일지, 텔레비전 방영 프로그램

- ◇ 1960년 5월 24일 : 전남일보 - 동창양민학살사건 6·25 특집기사
- ◇ 1960년 6월 : 나주문화원과 광주일보 「애향」의 6·25 특집
- ◇ 1996년 : 나주신문에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2회」 게재
- ◇ 1998년 6월 : 「세화와 지죽」 책자에 수록
- ◇ 2000년 1월 18일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 49주기 합동위령제 봉행기사(3방송사)의 12시~21시 뉴스 방영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활동

- ◇ 1998년 12월 28일 : 나주시의회 진상조사 특위구성 나주시의회 제 3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요구안(나주시의회 이상계 의원 발의) 만장일치로 가결
- ◇ 1999년 2월 25일 :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국회청원
- ◇ 1999년 12월(나주시장)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예산지원(8,000만원)
- ◇ 2000년 1월 18일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희생자」 제 49주기 합동위령 봉행

◎ 지리산외공마을 - 김석창 실행위원

(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위원회)

지리산 외공리 양민학살 사건

1. 사건의 개요와 성격

▶사건의 개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2월 하순(한국일보 1960년 4, 5월 기사) 혹은 3월 중순(부산일보 1960년 4월 기사),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로 군용트럭을 앞세운 버스 행렬이 들어왔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버스는 최소 11대에서 14대였다고 한다. 버스 번호판은 '신흥' '경북' 그리고 '서울시영버스'였다는 증언이 있다.

이들 행렬은 외공 마을을 지나 중산리 쪽 반천마을로 올라갔다가 빨치산들의 총격을 받고 다시 철수, 외공마을 뒤 속칭 소정골 앞에서 버스에 타고 온 양민들을 하차시켜 골짜기로 끌고 갔다. 이때 이미 낚새를 차린 양민들이 저항하면서 '아저씨 좋은 곳으로 살려간다더니 이리 가면 우리 죽는거지요'라면서 울부짖기도 했다.

이들 양민들이 골짜기로 끌려간 자리에는 이불, 옷가지, 슬단지, 갓난아기 배개 등 가재도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당시 현지주민들이 회수했다고도 한다.

소정골로 끌려간 양민들은 곧바로 학살을 당했다.

유일한 현장모격자의 머느리 증언에 의하면 구덩이 앞에 한사람씩 세워놓고 총을 쏘았다고 한다. 이 부분 다른 지역 학살사건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지역 사건을 보면 무더기로 모아놓고 기총소사나 수류탄 투척등을 자행하였는바, 가끔 생존자가 있었으나 외공의 경우 마치 처형하듯이 학살을 자행하여 생존자가 전무하다. 이는 학살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어쨌던 이날 희생된 희생자 수는 버스를 10대, 한 대당 정원을 40명으로 잡아도 최소 400명에서 최대 7, 8백명이 될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사건의 성격

가해자는 김종원 부대라는 보도와 증언이 있으나 공식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누구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고, 사건 후, 세월이 흐른 뒤 밤중에 몰래 현장을 찾아와 통곡을 하다가 간 사람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으나 이 역시 최근 10년에는 무소식이라는 것.

다만 지난 5월 14일 당시 '仁商(인천상고)' '京農(경성농고, 서울시립대 전신)'

'金中' 등의 글자가 새겨진 교복 단추 발견, 숟가락, 금니빨 등의 유류품, 이들을 추적 분석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학살 현장이 공개되기까지의 경과보고

- 1998년 1월 진주문화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현장 조사 및 탐문 시작 (연출 김석창, 작가 윤영수)
- 6월 1차 발굴 시도. 현장에서 다수의 유골 발견 후 재매장 후 무명비를 세우다
- 11월 진주 MBC '지리산의 눈물'을 통해 세상에 공개
- 1999년 6월 진주 MBC 등 위령제를 지냄
- 6월 진주사랑청년회 주최로 진주시민 40여명 통일역사기행
- 8월 진주사랑청년회 순천늘푸른청년회 부산민주청년회 회원 80여명 영호남 민주청년 통일 역사기행(입구 안내판 설치)
- 10월 입구 안내판 교체(진주사랑청년회 순천늘푸른청년회)
- 2000년 4월 위령제 제안
- 5월 1차 실무 모임(전민규 이기동 김영이)
- 5월 2차 실무 모임(전민규 김영이 양재성 김석창 윤영수)
- 5월 지리산 외공 양민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통일기원 진혼굿 행사 진행 및 발굴  
추진위모임(김덕현 김석창 유순필 이기동 전민규 김영이 서울 MBC: 대책논의와 발굴진행관련 토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사진과 기사 실림(윤성호): 仁商에 대한 제보요청
- 5월 발굴 및 봉분완료  
추진위모임(양재성 이호준 서봉석 이기동 전민규 김영이: 대책위의 필요성과 24일 모임 준비 논의)
- 5월 제보전화('仁商'의 단추가 인천고등학교일 가능성)
- 5월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 통화(가능성 확인)  
인고 총동문회 홈페이지(inkoin.com)에서 확인  
인고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제보요청글 올림
- 5월 인상(仁商) 금중(金中) 경농(京農) 등 발굴된 물품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림  
민주노동당 진주시지구당 회의에서 대책위 실무자를 파견하기로 결의함  
경농(京農) 단추가 서울시립대 전신인 경성농업학교임을 확인.  
추진위모임(서봉석 김석창 전민규 김영이 유순필: 경과정리와 24일

추진위모임 준비, 19일 구례학술회의 참여문제 논의)  
 제보자 찾기 방송(MBC 화제집중)  
 제4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구례 한국통신연수원: 사진전  
 시 및 참석자들에게 홍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참석  
 (전국적인 유족모임을 만들 것이 제안됨)  
 행사추진위 모임(대책위를 꾸림)

### 3. 발굴보고

발굴지휘: 김석창 전민규 이통주  
 발굴분석: 고경혁(경상대 의대 부학장)  
 발굴: 지관 최동규의 1명, 외공마을주민 5명, 큰들문화예술센터단원(김주열  
 이진관, 박세환, 송병갑) 포크레인 1대  
 발굴보고서(고경혁 선생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 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5m였음  
 → 1m 미만의 흙을 파자 유골이 나오기 시작함.  
 → 총 6개의 구덩이중 1개를 발굴함.  
 → 발굴 결과 150명으로 추정되는 분량의 유골이 수습됨.  
 → 유골들의 상태는 뒤죽박죽 엉켜있었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음.  
 → 유골중에는 어린 아이의 유골도 있었음  
 → 유골에서 금이빨을 한 유골도 발굴됨  
 → 유골 외 단추(프라스틱, 옥, 쇠로 만들어진것) 지퍼 혁띠 형겹조각,  
 숟가락(프라스틱3개, 놋 수가락1개, 스텐2개, 휘어만든것2개), 총알  
 다수, 구두칼 등이 발굴됨. 글자가 적힌 단추가 발굴됨(仁商, 金中,  
 京農의 글귀가 적혀있음)  
 → 국화문양이 들어있는 직경 4cm크기의 잔이 나옴(잔의 측면에는 O常小學校O라는 글귀가 적혀있음-심상소학교라는 교원양성학교일 가능성이 있음)  
 → 발굴된 유골은 가로2m 세로2m 관 2개에 가지런히 누여 매장하고 봉문을  
 만듦.

### 4. 제보로 확인된 사실

▶ 仁商의 단추는 현재 인천고등학교인 인천상업학교가 1933년부터 1951년까지  
 사용했던 모표로 4 5 6학년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 확인)

▶ 京農의 단추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인 경성농업학교의 것으로 경농단  
 추는 1945년까지 사용하였다.(서울시립대 박물관 확인)

### 5. 각계반응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한다.  
 대책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유족 및 증언자를 찾아야한다.  
 사건을 추측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한다.  
 유골을 매장하지 말고 추모관을 만들어 전쟁의 참상을 알려야한다.  
 지리산을 추모관을 중심으로 전쟁반대 교육장으로 활용해야한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유족을 찾고 홍보를 해야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 6. 대책위 활동 방향

피해자의 신분, 유족, 가해자 사건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  
 록 요구한다.  
 외공리에 추모관을 세워 전쟁반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에 있는 양민학살 대책위 및 유족회와 함께 모든 양민학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한다.  
 매년추모제를 거행한다.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각계각층에 사건을 알린다.

● 전남화순지역 - 김성인 의원

(화순군의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I. 남면 다산 마을의 학살사건

1. 학살 사건 발생

- 1) 일 시 : 1950. 11. 17 18:00(땅거미 질 무렵)
- 2) 장 소 : 화순군 남면 다산마을 마을회관 및 마을앞 논,

2. 학살전후의 상황

1) 학살부대 : 11사단 20연대 1개 중대장 육군소위 장현수(일명 장소위 부대)의 소속 국군에 의해 사살됨.

2) 당시 장소위 부대, 꽤꼬리 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 공화국 소속 동북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 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 20여명을 집단 사살함.

3) 무차별 사살후 국군들이 물러간 후 유족 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매장되었으며 현재까지 같은 날 제사를 모시고 있음.

3. 가해자

1) 한국군에 의한 학살 : 11사단 20연대(연대장 육군대령 박기병) 1개 중대장 육군소위 장현수

4. 피학살자 현황

- 1) 피학살자 인원 : 23명(유족신고 인원)
- 2) 피학살자 구성원 : 청년 23명(최고령자 41세, 최소연소자 17세)
- 3) 피학살자 성격 : 양민

5. 유족회 활동내용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 내용  
 ○ 당시 학살된 마을 청년 중 유일한 생존자 정대섭(현 다산마을 거주)에 의하면 당시에는 매일 주간에는 국군이 야간에는 인민부대가 마을을 점령하여 통제 하였는데, 50. 11. 17저녁에는 국군이 “마을 주민들이 인민부대에 동조했다”는 정보를 듣고 와서 마을 청년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증언함.

전일에는 인민부대 「동북하」씨가 마을회의를 주관한바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함.

○ 동마을 이장 오옥탁(남 62세 당시 中1학생)에 의하면, 당시에 소위 장소위 부대, 꽤꼬리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공화국 소속 동북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 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들을 학살하였다 증언함.

2) 국회나 정부에 제출 탄원서, 청원서 그리고 입법 청원 및 이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반응과 답변 내용

- 화순군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 별첨 #1.
- 정부에 진상조사 건의 후 회신  
 - 행자부, 국방부 :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후 처리계획(공문사본 별첨)

3)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내용

- 국방부에 자료요구('99. 8. 24)- 국군 20연대 6. 25전쟁시 작전기록 사본과 화순지역 작전 상황일지
- 회신없음.

4) 헌법소원 : 미제출

5) 피해보고서나 책자 발간 : 화순군 의회 「진상조사 보고서」(별첨)

6) 언론보도 : 별첨 #2

7) 지방자치 단체나 의회의 활동 : 화순군 의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중

8) 유족회 구성 : 미구성

II. 도암면 도장리의 학살사건

1. 학살 사건 발생

- 1) 일 시 : 1951. 3. 17. 07:00(이른 아침)
- 2) 장 소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마을앞 논(일명 도포뱀이)

2. 학살전후의 상황

1) 학살부대 : 국군(구체적 부대명칭은 알 수 없으나 증언에 의하면 일명 「장소위 부대」소속 국군이라 함.)

2) 1951. 3. 17 새벽 마을에 진주한 국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살려면 모두 나오라” 하여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앞에 모인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여 20여명이 사망함.

3. 가해자

1) 한국군에 의한 학살 : 부대명칭과 지휘관 알 수 없으나 「장소위 부대」 소속 국군으로 전해음.

4. 피 학살자 현황

- 1) 피학살자 인원 : 20여명(유족 신고인원)
- 2) 피학살자 구성원 : 노약자4, 부녀자3, 장년13명
- 3) 피학살자 성격 : 양민

5. 유족회 활동내용

-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 내용
  - 현 마을이장 김범술의 증언에 의하면,
    - 51. 3. 17새벽에 국군이 마을에 진주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손들고 나오라고 하여 마을앞 논(일명 도포뽕이)에서 20여명을 집단 사살하였다고 함.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젊은 부인이었던 나순례(현재 도장리 거주, 77세)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살려면 다 나오라”고 해서 철길이나 도로를 보수하려한지 알고 팽이나 호미 등을 갖고 나왔는데 군인가족이나 경찰가족은 한쪽으로 나오라 하고 위 쪽에서 아래쪽으로 무작위로 총을 쏘았음.
- 2) 화순군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 별첨 #3
- 3) 진상규명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 내용 : 남면 다산마을 학살사건과 동일
- 4) 피해보고서나 책자 발행 : 화순군의회 「진상조사 보고서」(별첨)
- 5) 언론보도 일지 : 별첨 #4
- 6)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활동 : 화순군 의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중
- 7) 유족회 구성 : 미 구성

● 경남산청군 시천·삼장지역 - 정맹근 회장

(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

□ 유족회 명단에 수록된 삼장, 시천, 단성 학살자 일자(장소)별 내역

학살 일자	학 살 장 소	학살자수			비 고
		계	남	여	
49. 6. 19	당산마을앞(단성)	2	2		
49. 7. 18	신천초등학교	27	27		
49. 7. 18	곡점강변(시천동당)	2	2		
49. 7. 18	신천마을(시천신천)	10	7	3	여1명 소사 (진또분)
49. 7. 20	원리뒷산(시천원리)	2	2		
49. 7. 22	"	78	78		
49. 7. 23	보안뒷산(삼장보안)	2	2		
49. 7. 24	까막골(삼장평촌)	1	1		
49. 7. 25	원리뒷산(시천원리)	22	19	3	
49. 7. 28	"	2	2		
49. 7. 30	"	2	2		
49. 7. 31	"	2	2		
49. 8. 3	"	1	1		
49. 8. 3	백운도로변(단성)	1	1		
49. 8. 9	원리뒷산(시천원리)	2	2		
49. 8. 20	"	7	7		
49. 9. 24	장소미상	10	10		
49. 11. 20	내대마을(시천)	11	7	4	
49. 11. 21	원리뒷산(시천)	9	9		
49. 12. 20	양당못안(시천사리)	1	1		
50. 1. 2	까막골(삼장평촌)	9	9		
50. 1. 21	중산계곡(시천중산)	1	1		
50. 2. 13	창촌리 논(단성)	1	1		
계		205	195	10	



□양민학살 실태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패잔병이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침투하므로써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땅에 전운이 감돌았다.

1949년 7월 18일 새벽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시천면 원리 덕산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군 3년대 소속 소대병력이 작전수행차 출동하던 중 시천면 신천리 일명 설통바위 모퉁이에 매복중이던 반란군에 의해 37명 전원이 몰상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원인이 주민중에 통비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군은 이날 오후 인근마을 주민들을 신천초등학교에 모이게 한 후 노약자와 부녀자는 학교 주변의 죽림(대나무 숲)을 제거하게 하고 청·장년 27명을 집단학살하고 신천마을과 보안마을 가옥을 불지르고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 14명을 사살하였다.

아마도 이 사건이 국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국내 최초의 양민학살 사건이리라. 이후 7월 22일에는 원리소재 덕산초등학교(현 덕산중고등학교)에 주민들을 모아 100여명의 주민들을 학교 뒷동산으로 끌고가 집단학살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1950년 1월에 이르기까지 근 6개월 여간에 걸쳐 거리에서 들녘에서 닥치는 대로 사살하고 가옥 수백채를 불태우는 등 엄청난 만행을 자행하였다.

아무리 전시 하에서라고는 하지만 우매하고 순박하기만 한 농민들을 부역자란 이름으로 몰아 옥·석의 구분없이 무차별 학살한 행위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하여 희생된 양민의 수는 수 백명에 이르나 그후 6·25전쟁이 일어나 오랜 전란의 와중에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저주의 땅, 원한이 사무친 고향에 돌아오기 싫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끈긴 사람, 전쟁의 틈새에서 세대마저 끊어진 유가족들을 제외하고 유족이 살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200여명에 이른다.

금수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찌 이처럼 무자비 할 수 있었던 말인가. 그것도 적군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 사건은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 구천을 맴도는 억울한 영령들의 혼령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만행이 저질러진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왜곡된 역사의 그늘에 가리워진채 50년이란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들의 원한은 뼈에 사무쳐 오늘도 즐기차게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중요사항 일지>

- 89년 9월 6일
  - 희생자 위령비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 고 문 : 이두기, 이병문, 하태호, 최영열

- 추진위원장 : 최인호
- 부 위원장 : 이통주, 정판상
- 총 무 : 정재근
- 위 원 : 조계환, 이보환, 정경규, 허종백, 박은석, 이대치, 권영을, 오병철, 이재천, 박병용, 정태호, 장경생, 정영근, 손영태, 배도석, 이범용, 김종호, 김기호, 조일경, 박도일, 정윤종, 김종환, 조은환, 하재석, 김춘식, 정태갑, 하계복, 박원길, 조승환, 하주갑.

- 89년 9월 18일
  -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탄원서제출(7건) : 대통령, 경남지사, 문화공보부장관, 육군 참총장, 민주공화당 총재, 평화민주당, 노인환의원
- 90년 5월 26일
  - 희생자 유족회 결성
  - 회 장 : 정재근
  - 부회장 : 이환주, 김종환
  - 총 무 : 이재천
  - 감 사 : 김종호
  - 각리동별 유사 : 내대리 박도일, 중산리 권영을, 동당리 이범용, 신천리 손영태, 반천리 하계복, 내공리 하재석, 천평리 정영근, 원리 배도석, 사리·중태리 김기호.
- 90년 11월 30일
  - 위령비 문안 심의(한정용 찬)
  - 위령비 건립 모금운동 전개
- 91년 3월10일
  - 위령비 건립부지 계약 : 외공리 대지 350평 대금 6,000,000원
- 92년 3월 2일
  - 위령비 문안 수정 (진주 최인찬 찬)
- 93년 6월 4일
  - 대통령 비서실 학살사건 진상요망 민원회신(국방부에 이첩처리)
- 93년 9월 4일
  - 외공 위령비 건립부지 매각 매각대금 10,250,000원
  - 반천입구 폐도부지에 건립키로 결정
- 94년도 3월 4일
  - 충남석재와 비석가공 계약체결
  - 국방부장관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청원서 제출

- 94년도 4월 26일
  - 위령비 제막식
  - 초헌관 : 산청군의회 의장 김기조
  - 아헌관 : " 부의장 조계환
  - 종헌관 : 시천면장 노재덕
  - 집례 : 추진위원회 고문 최영열
- 94년 5월 17일
  - 검찰총장 민원에 대한 회신 (국방부로 이첩처리)
- 94년 7월 16일
  - 국방부장관 회신
  -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포함시켜 동일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령탑 건립피해 보상등 해결이 바람직하며 적극 협조 용의
- 96년 6월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유족 등록 신청서 192부 경남도에 제출
- 96년 7월
  - 경남도로부터 유족등록 신청서 반려
  - 〈반려사유〉
  - 시천·삼장지역 양민학살 사건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등 성격 규정이 되지 않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처리가 불가능함.
- 98년 4월 27일
  - 청와대, 국회의장, 감사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 98년 4월 30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 관계부처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행자부에 통보함.
- 98년 5월 2일
  - 감사원장 회신
  - 국방부에서 조사처리 하도록 하였음
- 98년 5월 7일

- 국회의장 회신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
- 98년 5월 11일
  -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회신
  - 거창사건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사건이 아님
- 98년 6월 9일
  - 국방부 진정회신
  -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 같이 국회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
- 산청군의회 특위 (99. 10. 7 - 2000. 4. 7)
- 99년 8월 10일
  -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시천, 삼장,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청원서 제출
  - 청원자 : 정맹근 외 19인
  - 소개의원 : 조종명 의원
- 99년 10월 7일
  - 산청군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특위 위원장 : 조종명 의원
  - 간사 : 서봉석 의원
  - 위원 : 공용식 의원
  - 김희수 의원
  - 조사기간 : 99. 10. 8 ~ 2000년 4월 7일 6개월간
  - 1차회의 99년 10월 7일 의회 특위실
  - 2차회의 10월 11일 유족간담회 특위실
  - 3차회의 2000년 3월3일 시천면사무소 처리조사활동(유족증언 청취)
  - 4차회의 3월7일 삼장면 "
  - 5차회의 3월14일 시천면사무소 "
  - 5월19일 가해자 증언청취
- 2000년 4월 25일
  - 서울 MBC 사건현장 취재 박노업 PD(25, 26, 27일 3일간)
  - 6월 방송예정

##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 청원관련 증언 등 요약

## □ 유족회 참석증언 마무리

1. 증언 및 현장 조사일시 : 2000. 5. 19. 15:30
2. 장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라 아파트 115동 606동
3. 참석인원 : 유족회장, 서봉석의원, 사무과 직원 1명
4. 증언자 : 조재미 (당시 덕산 주둔부대 3연대 2대대장)

○ 서봉석의원 : 산청군의회 의원이다.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특별조사반이 편성되었고 본인은 특별조사반 간사인데 피해자의 조사는 거의 마쳤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기해자 측의 증언을 청취하여 공정한 조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여 주었으면 한다.

○ 조재미 : 조금전에 다녀간 MBC기자들이 당시에 양민을 학살하였다고 하는데 현지에 있을 때 나와 노군수(노재윤 : 1949. 6. 21-1950. 5. 6) 조명환 청년대장등 관계기관장과 유대가 얼마나 좋았는데 주민을 죽였겠느냐, 지천풍 중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지천풍이가 주민을 죽였으면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내게 보고했겠느냐, 보고하지 않으면 나는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을 죽였으면 연대 정보작전 주임 김시곤 대위가 죽었지 나는 주민들을 죽일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다만, 작전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김시곤이가 죽이려는 사람도 조명환 청년대장이 살려주라고 해서 나는 살려준 사람이다.

○ 정맹근 유족회장 : 산청에서 체재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조재미 : 하도 오래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다.

○ 정맹근 유족회장 : 지천풍 중위는 직책이 무엇이었나?

○ 조재미 : 중대장이다. 김시곤은 연대작전주임이고, 정해운은 대대정보장교로 나의 부하였다. 김시곤이는 초기에는 극렬 좌익분자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군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안다. 후에 보안서장까지 지냈다.

○ 서봉석의원 : 혹시 지중위가 양민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공비를 죽였다는 전과보고를 할 수 있지 않는지?

○ 조재미 : 그런 일은 없다. 사람 죽인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보고했겠나? (그러면서 국방부 전사자료 복사본 1권을 내어놓고 계엄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공비와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광주에까지 데리고 가도 죽일 것이니 현장에서 죽였는지 알 수 없다.

또 주민을 죽였으면 산골짜기에서 2-3명씩 기술적으로 처치하지 왜 수십 명을 한 장소에서 집단총살 했겠느냐, 당시에 잔인한 부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입으로 말하며나 큰일나지. 아무튼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에게는 가슴아픈 일이다.

○ 서봉석의원 : 다음 희생자위령비 제막식 때 초청하겠으니 한번 다녀갈 의향은 없으신지?

○ 조재미 : 아니 내가 왜 가나. 함부로 그런 말하지 마시오.

2000. 6. 14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회

## ● 여수지역 - 이춘송 대표

(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 I.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 양민 집단학살 사건

## 1. 증언제보자 : 이 춘 송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물운대A 116동 1504호)

나이 63세(371006-1110119), 연락처 부산 051)263-7816

가족 희생자 - 부 이신태(당시 45세), 모 최춘자(36세),

여동생 이경숙(6세), 남동생 3세

당시 현장 희생자 - 140~150명 추정

## 2. 증언을 토대로 한 폭격 상황 요약

• 1950년 8월 3일(음력 6월 21일), 날씨는 맑고 아주 깨끗한 아침이었다. 아침 9시경 산 위에서 제트기 소리에 뱃머리를 살펴보니 배 앞쪽에서 제트기가 저공으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처음 기관총 2발을 먼저 쏘고 난 후, 4대가 연달아 계속 섬을 돌면서 기총 사격을 가해 왔다. 그 당시 배에는 태극기가 매어 있었는데 왜 사격을 하나 의아해 했었다.

• 나는 당시 12살이었고, 형은 15살이었다. 나는 배 물통 뒤에 숨어서 사격 현장을 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한쪽에서 7~8명씩 배 안과 밖으로 쓰러져 갔다. 미군 제트기가 돌아와 탈출하는 배에까지 사격을 가하여 배에 맞지 않고 물에 맞으면 탄흔이 물보라처럼 분수대같이 튀어 올라 나의 옷을 흠뻑 적셨다. 주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신음과 아우성은 하늘을 찔렀다.

• 선장실 위에도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17~8세 되는 청년 한 사람은 양쪽 엉덩이 살이 다 떨어져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잡고 내려오고 있었고, 바로 물통 뒤에 있던 나에게는 위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내 몸을 뜨겁게 적시길래 누가 오줌을 싸는 줄로 착각을 하였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나에게 약을 준 고마운 부인이 팔과 불에 총을 맞고 배 난간에 기대어 수건으로 피를 봉하고 있었고, 배 안에는 미처 올라오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어느 부인이 죽은 그 위에는 애처롭게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 우리는 육지로 올라와서 재빨리 수수밭의 동쪽으로 숨어 살펴보니,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고 없었다. 형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으러 자갈밭을 달려나갔다가 잠시 후 울면서 돌아왔다. 재빨리 자갈밭에 나가보니 어머니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돌아가서 있었고, 동생은 어느 집 뒤 나무단 위에 상반신이 시퍼렇게 되어 죽어 있었다. 나는 동생을 안아 어머니 옆에 고이 눕히고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몇 시간이나 맨발로 산

속을 헤매며 아버지를 외치면서 찾아 헤맸다.

• 그 다음날 아침, 동네 상황을 살펴보니 이곳 섬은 인민군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 전날 저녁, 형은 어둠이 틀 무렵 몇몇 사람과 함께 줄을 잡고 배에 가서 총 맞은 냄비 한 개와 쌀과 짐꾸러미를 찾아 신고 나왔다. 우리는 동쪽 산에서 하룻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서쪽 산위로 가서 우리 키가 조금 넘은 소나무 밑으로 숨었다. 그렇게 나무숲에 숨어 지내는 2~3일째 되는 날 아침, 또 다시 제트기 한 대가 정찰을 하러 산 위에서 배를 향해 소리 없이 지나갔다.

• 하루는 미군 제트기가 바닷가 집 뒤를 돌아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널빤지 위에는 이미 총을 많이 맞아 전신의 살이 파헤쳐져, 피로 멍든 35세쯤 되는 청년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 청년은 엉덩이가 파헤쳐져 사람한테 얹혀진 채로 상처에는 호박이 붙여져 있었다.

• 5~6일째 되는 날, 군복 입은 사람이 탄 배가 오더니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은 배에 실으라고 지시를 한 뒤 불을 질러라 했다. 해가 질 무렵 몇 사람과 같이 우리는 불이 하늘 높이 솟고, 시커먼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 배 안에 어미를 잃고 젖을 물던 어린 간난애도 기어이 죽고 말았다. 그 애 아버지는 그곳으로부터 2km 떨어진 소리도 산 위를 기어올라가다 아이를 손으로 훔쳐와서 훔쳐 돌려 파묻으면서 슬피 통곡을 하였다.

• 소리도 작은 마을 국민학교에 가서 잠을 자고 나니, 먼저 온 사람은 약 200명 안팎이었다. 나머지 140~150명은 그 배에서 죽고 말았다. 유일하게 땅에 묻힌 사람은 소리도 산 속의 어린 간난애 혼자 뿐이었다. 그 학교에는 여수에서 왔다는 경찰관 약 200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

• 1950년 8월 7일경, 돌산에서도 미군 제트기 2대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내리면서 기총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2. 여수시 남면 두록여 조기잡이 어민 집단 학살 사건 참조)

• 사고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차 기총사격이 끝난 후 1시간 전후해서 마을 주민들이 부상당한 피난민들을 구출하러 현장에 접근하여 구조를 하고 있을 때에 또 다시 미군기가 나타나 구조하는 주민들을 향해 기총 사격을 가해 마을 주민도 이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3. 폭격 당한 현장 :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

### 4. 증인

- ① 유영구(남, 70세) : 0662)666-8442
- ② 김향조(남, 70세)

③ 김우환(남, 67세)

④ 유봉구(남) : 부친이 피난민 시체를 배에 옮겨 주었다고 학교운동장에서 인민군에 의해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고 진술함.

⑤ 강우신(여) : 0662) 665-9488 / 부친이 소리를 잡다 제트기가 폭격하자 바위 굴에 숨어 있어 살았다고 진술함.

⑥ 권말지(여) : 0662) 665-9449

⑦ 이사연(여) : 0662) 666-9547

⑧ 하돌수(남, 67세) : 0662) 665-9388

⑨ 장원웅(남, 60세) : 0662) 665-9450 : 선박에 태극기 매단 것을 증언

⑩ 황만옥 : 0662) 665-9377

⑪ 박명제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⑫ 임두기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⑬ 한근영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⑭ 박홍례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 5. 사고 일지

-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 발발
- 우리 가족 7식구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북에서 월남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월남 피난민촌에 피난하였다가,
- 부산시 진구 성남국민학교에 집결하여 일주일간 머물다가 같이 수용되어 있던 350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부산 연안부두에 집결함.
- 1950년 7월 21일경, 부산 연안부두에서 350명의 피난민들은 여객선을 타고 출항하여 경남 충무의 충무국민학교에 집결 수용
- 1950년 7월 27일경, 충무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쌀 배급을 받고 당일 오후 약 2시경에 다른 화물선(목선)을 타고 육지도에 입항하여 약 5일간 학교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다시 출항함.
- 1950년 8월 1,2일경 저녁 무렵, 전남 여천군 남면 안도리 섬 이야포 포구에 정박 / 하루밤을 지새고 난 3일날 아침, 아버지가 육지에 나가셔서 손수 지어오신 밥을 먹고 난뒤
- 1950년 8월 3일(음력 6월 21일) 아침 9~10시경, 미군제트기 1개 편대 4대에 의해 처음 2발을 발사한 후 연속하여 돌면서 기총 사격을 당하여,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여동생은 총상을 입고 배 위에서 바다로 떨어져 숨지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구명보트를 타고 가시다 전복 당하여 돌아가셨다.

<의문사항>

1. 폭격당한 피난민들의 시체를 왜 화장하였는가?
  - 당시 안도리에서 140-50기의 시체를 매장할 공간이 없어서 화장했다는 설이 유력, 따라서 떠내려온 유구만 수습하여 현재 매장된 분묘는 10여기 정도
2. 상황은 며칠에 걸쳐 남면 일대를 계속 강타, 돌산 폭격 상황도 실제로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의 바다에서 일어난 상황
  - 피아의 전선이 어떻게 배치되었길래 우발적 폭격이 아닌 전술적 폭격을 계속 감행했는가?
3. 당시 전선의 배치상황이 의문?
  - 인민군 6사단 주력은 순천을 거쳐 광양, 하동방면으로 해서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으며, 6사단중 일부 병력이 여수지역 점령을 위해 남하하였음.
4. 폭격기 주체의 발진 기지는?
  - 당시 UN군 비행기지는 동경 맥아더 사령부에서 출격하였으며, 수도권 회복 이후에는 대전기지로 전진 배치되었다 함. 일설에 의하면 1950년 8월 13일 기총사격 촬영 장면이 최근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비행기는 미공군 제 25 전투비행 단 F80 슈팅 스타기로 추정되고 있다.
5. 피난민들은 왜 부산을 집단으로 떠나 남면으로 왔는가?
  - 정부의 난민 배치 계획에 의해 제주도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설
6. 현지에 주둔했던 아군은 어느 소속의 경찰인가?
  - 아마도 퇴각하여 쫓기는 상황의 패잔 경찰일 듯 싶다.

## II. 여수시 남면 두록여 조기잡이 어민 집단 학살사건

- 1950년 8월 7일 (음력 6월 25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두록여 사이의 바다에는 전날 조기떼가 나타나 많은 고기를 잡은 관계로 이날도 인근 돌산도와 횡간도, 화태도, 금오도, 개도, 제리도 등의 여러 섬에서 백여척의 낚시 배가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이용하여 조기를 잡고 있었다.
  - 이날은 전날과 달리 조기가 많이 잡히질 않아 정오 무렵이 되자 일부 배들은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돌산도 부근에서 미군 제트기가 나타나 저공으로 정찰 비행을 하면서 남면쪽으로 날아간 후 다시 비행기 소리가 나더니 조기배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세 번 비행기가 지나간 바다에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어떤 이는 총탄에 목이 날려 배 위에는 목이 없는 시신이 걸쳐있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 이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명으로 다음과 같다

### 1) 남면 화태리

#### 사망자

- 황정래 : 당시 30세 전후 - 사촌이 현재 화태도 거주
- 김두천 : 당시 30세 전후 - 가족은 서울로 이주/ 장남 김태규
- 박상기 : 친인척 중 생존자 없음.
- 김청원 : 허벅지 관통상으로 3년후 사망
- 박또수 씨 아들(당시 17~18세)
- 김두철 : 당시 고기잡이 하던 중 사망

김일수 : 당시 고기잡이 하던 중 사망, 당시 김일수씨는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없었다고 함. 현재 누님이 화태리 현지에 생존해 계시며, 누님의 성함은 알 수가 없으나 박현동씨의 모친이라고 함.

#### 부상자

- 김동암 : 당시 30세 - 다리 관통상으로 다리를 절단 불구로 살다가 현 사망
- 김홍련 : 화태리 김정배씨의 부친으로 사건 당시 부상을 당함.

증언자 : ① 당시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김동석씨 73세 (0662-665-9158), 황학래씨 86세, 마을 이장 : 0662-665-5122 황정수  
 ② 김유철(사망자 김청원의 자, 현직 목사, 현재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거주, 0661-755-4706

### 2) 횡간도

#### 사망자

- 강동철 : 당시 35세 - 아들 강건용 횡간도 거주 (0662-664-8430)

#### 부상자

- 박중안 : 팔을 관통당한 뒤 회복
- 강수만 : 허벅다리 관통상으로 평생 불구로 사시다가 사망

증언자 :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전형래 78세 (0662-666-7742)

### 3) 돌산 군내리

#### 사망자

- 정순석 : 당시 52세 - 아들 정선호(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 (0662-641-1002)
  - 박윤용 : 당시 58세 -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출혈이 심해 음력 7월 5일 사망
  - 김재열 : 당시 30세 전후 - 동생 김재완씨 가족 여수거주
- 증언자 :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박일웅씨 61세 (0662-644-1961, 풍남 선구점)

4) 돌산 신기

사망자

박 씨 : 당시 30세로 외지(고흥이라고 함)에서 신기 마을로 이주해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변을 당했다.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부인은 사고 후마을을 떠남.

부상자

이상녹 :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현재도 흉터가 있음. 현재 돌산 신기마을 노인회장.

증언자 : 이상녹 - 부상자

Ⅲ. 한국전쟁 관련 여수 여자만 양민학살

여자만의 장도와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원주도 사이에 있는 바다 위를 미군의 비행기가 폭격한 시기도 남편 사건이 나던 1950년 8월 초순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여자도의 최종순씨(현 77세)는 "넘자바닥을 때리고 남편으로 가서 피해가 컸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벌교읍에 속한 장도에서는 김계순(당시 40대 중반), 박산수(당시 40대 중반)씨와 20대의 김영희씨가 폭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가 박산수씨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김영희씨는 평생을 불구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합니다.

고흥의 원주도에서는 당시 2명이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아직 확인하질 못하였습니다.

여수시 화정면에 속한 여자도에서는 기총소사로 섬 주민이 대피하던 상황 정도가 있었고 순천에서 피난왔던 사람이 돌아가는 배에 사격을 가하자 물로 뛰어 들었다가 피해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몇군데 마을에서 제보받은 계가 알고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 익산역오폭사건 - 이창근 부회장

(익산역 미군폭격유족회)

1. 학살사건의 발생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서 비행기 2대가 이리 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그 순간 이리 역 일대를 선회하던 폭격기는 시커먼 무엇인가를 떨어 뜨렸다. 이리 역 일대를 무차별 폭격하여 약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군 폭격기는 약 10분 뒤 또다시 이리 역 상공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전소와 전라선 철길주변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미군 폭격기에 의한 양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리 역과 변전소 주변에 가공할만한 폭격을 가한 4일 후 이리 역 일대의 상공에는 일명 '호주기'라 불리는 미 공군소 속의 전투기 4대가 나타났다. 전투기들은 편대비행으로 이리 역 상공을 상회하며 일대를 살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다시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비행을 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던 사람들과 무고한 양민들을 향해 로켓포를 쏘고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2. 폭격전후의 익산

1950년 7월 11일 당시 미군은 천안을 점령하고 남진하려는 북한군에 맞서 천안부근에서 있는 전의라는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와 같은 시기 한국군은 진천-청주지역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뺏고 빼앗기기를 거듭하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접전지역과 적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익산은 전쟁의 기운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평온하였다. 학교,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일상에 전념하고 있었다. 별로 전쟁이란 느낌이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은 기관사와 기관조사, 조사계원 등 이리운전사무소 소속 철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전시상황이라 비상대기 중이기는 했지만 평상시와 다른 것은 별로 없었다. 그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른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리 역 주변에 버드나무 3그루가 있는데, 7월 중순 정오의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엔 충분한 휴식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늘아래 누워 있었고, 장기나 바둑을 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 피난 갈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서 비행기 2대가 이리 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그 순간 이리 역 일대를 선회하던 폭격기는 시커먼 무엇인가를 떨어 뜨렸다. 그러자 직원들과 민간인들은 낙하산이 떨어진다고 신기해하며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나 담소를 나누던 여유로움은 잠시였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엄청난 화염이 이리 역 일대를 삼켜버렸다.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된

이리역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이리역 구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군의 폭격은 이리 역과 접해있었던 송학동 주변의 50여 채의 민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50여 채의 민가에는 일가족, 아니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격으로 50여 채의 민가는 온데 간데 없었고 민간인들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리역 일대를 무차별 폭격하여 약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군 폭격기는 약 10분 뒤 또다시 이리 역 상공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전소와 전라선 철길주변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변전소 주변에는 5일만에 우시장이 열려 김제, 군산, 임피 등에서 장을 보러온 수많은 민간인들이 모여있었다. 그리고 전라선 철도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김제방면에서 이리역을 향해 변전소 옆을 걷고 있었다. 2번째 폭격으로 장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군에 입대하려던 청년들 약 100여명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미군 폭격기에 의한 양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리 역과 변전소 주변에 가공할만한 폭격을 가한 4일 후 이리 역 일대의 상공에는 일명 '호주기'라 불리는 미 공군소 속의 전투기 4대가 나타났다. 전투기들은 편대비행으로 이리 역 상공을 상회하며 일대를 살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다시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비행을 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던 사람들과 무고한 양민들을 향해 로켓포를 쏘고 기총소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시작된 고막을 찢는 듯한 총소리와 폭발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겁에 질려 앞뒤, 장소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민간인들을 직접 겨냥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는 30 ~ 40분간이나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수백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 3. 미군의 폭격에 의한 학살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서 비행기 2대가 이리 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당시는 전시상황이었기 때문에 철도기관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은 습관적으로 비행기의 국적을 살펴보았다. 그 날 2대의 비행기는 중앙에 별 모양과 그 양옆으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미 공군의 마크가 선명한 미군의 중폭격기 B24 2대였다. 그전에도 미군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종종 본적이 있던 철도청 소속직원들은 그 날도 그냥 흘려보내려다 아군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미군기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7월 15일에 로켓포와 기총소사를 가한 전투기들은 일명 섹섹이, 또는 호주기라고 불리우는 미 공군소속 전투기들이었다.

### 4. 피학살자 현황

익산시가 2000년 3월 현재까지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유족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파악한 피해인원은 사망자 120명, 중상자 10여명이다. 이 중에는 철도 공무원 59명을 비롯하여 부녀자와 노약자, 초·중등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정부 등에 의해 광범위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보다 정확한 피해자의 수가 밝혀지겠지만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 정부와 철도청의 공식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망자는 신원미상을 포함해 약 40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5. 유족회 활동내용

유족회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족회 확대와 증거자료, 또는 증언들을 확보하는 사업, 그리고 익산사건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사업이다. 현재 피해자 예상수에 비해 신고자가 너무 적고 따라서 충분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족회 회원들이 피해자나 유족들을 찾아내어 유족회로 모아내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푸른영상의 도움을 얻어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1차 기록작업은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보사업은 유족회 임원들의 각 단체나 대학들에서의 강연, 미군과 관련한 각종 집회와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는 위령비 건립사업이다. 익산폭격사건이 알려진 후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위령비 건립을 제안하였고 이를 유족회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아들여 도차원에서 거족적으로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령비 건립추진위를 전북도내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하고 폭격일인 7월 11일 익산역에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위령비 모형도를 제작하였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 최재승의 도움을 얻어 익산역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나 좀더 의미 있는 장소에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계속 협의중이다. 그리고 익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로부터 위령비 건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만원 추진위원 모집운동을 1000명을 목표로 전개하고 있다. 위령비 건립일인 7월 11일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사건관련 자료를 모아 1차 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해원굿을 중심으로 위령제를 치를 예정이다.

셋째는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이다. 유족회는 익산지역의 12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는 미대사관,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노근리 사

건후에 해결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만을 보내왔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는 제 사회단체들이 매월 2째주 화요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미연대집회에 참석하여 직접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촉구하였다. 유족회 회원들이 평균 10여 명정도 꾸준히 참석해 왔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부터는 서울지역의 통일, 시민, 학생, 종교단체들과 더불어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남궁진 정무수석 등을 면담하였고 지난달 30일에는 미 부대사를 면담하기도 하였다. 미부대사와의 면담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미군 폭격기가 이리 역 일대에 사재하여 작업 중이던 기관차는 물론 구내시설에 대해서도 가공할 폭격을 가하였다. 이리 역 직원들은 폭격을 받으면서도 적이 아님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서는 두 손을 저으며 소리소리 외쳤다. 그러나 고도 수천의 상공에 있는 폭격기에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생각다 못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사무소로 뛰어갔던 직원들은 그대로 폭풍과 함께 산산이 흩어졌다. 발악과 함께 어디론가 찢어져 가는 육체들은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지구가 갈라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사람들은 어디론지 없어졌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이리 역 일대는 그야말로 속대밭이 되었고 당시 이리운전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거나 갈기갈기 찢어졌다. 당시 사건 부상자중 한 사람인 벽 모씨는 그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B29야, 하면서 모두들 좋아하였지요 그러더니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으로 내려오면서 까만 덩어리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을 똑똑히 볼수 있었어요. 빠라다, 빠라다 모두들 이렇게 외치는 순간 팡! 팡! 요란한 폭발과 순식간에 먼지와 연기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생지옥이 되었어요. 뼈란줄 알았지 누가 폭격인줄 알았겠습니까? ... 살덩어리와 피와 신음소리가 아버지환을 이룬 가운데 자욱한 포염과 불꽃이 온 이리 천지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팡! 소리와 함께 건너편 기관차에서 기계수리를 하던 사람은 50미터 상공으로 날리는데 그 육체가 떨어질 때에는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리역에 근무한 남편이 폭격 때 이리역에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찾으려 했지만 워낙 시신이 많고 형체를 알 수 없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흘 뒤 스텐레스 반지를 끼고 까맣게 그을려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확인할 땐 미군이 밟고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 사고가 난 뒤 이리역에 처음 갔을 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체가 많은데다 거의 새카맣게 타버려 누가 누구지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찾기를 포기하고 이틀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스텐레스 반지를 끼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확인결과 남편을 찾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sup>33)</sup>

33) 미군기 폭격으로 남편 이경옥(당시 28세)씨를 28살의 나이에 잃은 강순애씨의 증언이다. 스무 살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 이씨와 강씨는 폭격지점과 불과 2Km떨어진 목천

우리 가족은 목천동 목상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 날도 논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오후 2시 40분께 폭격기 2대가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두 바퀴 돌더니 이리 역에 이어 평화동 전라선 철길과 변전소 사이 도로에 폭탄을 쏟았습니다. .... 여름이라 흰옷을 많이 입은 민간인들이 이리 역이 폭격 당하자 논이고 도로고 할 것 없이 모두 목천동 쪽으로 쏟아져 나오던 중이었는데 또, 폭격이 있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철길을 따라 이리 역 쪽으로 가던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sup>34)</sup>

사건발생 4일 만인 15일 오후 3시경 당시 대전 철도국 이리운전사무소에서 동이리 역에서 유족들에게 현미60Kg 한 포대를 나눠준다고 해서 갔지만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군폭격기가 아닌 전투기에서 기관총을 쏘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40분 동안 계속된 기관총 공격을 피해 웅덩이에 들어갔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아 모현동 방향으로 몸을 숨겼다.<sup>35)</sup>

1950년 7월 11일 저녁, 폐허가 된 익산역과 변전소 옆의 시장과 도로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그을린 시체들과 갈기갈기 찢어진 육신들. 7월 15일 낮, 익산역과 변전소 사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주검들. 이것은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총격에 의한 익산양민학살사건 현장의 모습이였다.

## 6. 미군은 왜 이런 학살 만행을 자행하였는가?

### 1) 미군의 익산폭격은 과연 '오폭'이였는가?

철도청의 공식문서에서는 익산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을 UN군으로서의 최초의 전투에 참가한 UN군 비행기가 지리파악 미숙으로 이리를 당시 북한군 점령지역이었던 수원이나, 인천, 또는 북-미군들의 접전지역이었던 천안으로 잘못 판단하여 폭격을 가했다고 전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미 극동공군은 전쟁이 발발한 다음날인 50년 6월 26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F-80전투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같이 일본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정찰기를 발진시켰다. 그리고 익산을 폭격했던 7월 11일에 미 공군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접전지역이었던 천안부근과 북한군 점령지역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폭격을 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인해 북한은 접전지역과 후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sup>37)</sup>

리에 살았다.

34) 당시 17살로 형을 잃은 이덕구(77세)씨의 증언이다.

35) 당시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고 현재 유족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근(66)씨의 증언이다.

36) 철도노조, 「철로50년사」, 철도청, 1997, P.48

37) 노민영, 다시보는 한국전쟁, 한울,1991, P. 99 미공군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목표물들을 정확히 타격하여 북한의 공



이렇듯 다른 폭격기들은 폭격목표를 제대로 찾아 폭격을 가했는데 유독 익산 지역에 폭격을 가한 미군기만이 지역을 오인하여 폭격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폭격지점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폭격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미군은 폭격 4일 후인 15일 다시금 사람들을 향한 기총소사를 1시간여 동안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오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폭사건은 그 횟수나 폭격방식을 보면 도저히 오폭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 독도, 평택, 안성, 유성, 부산 등 민간인들을 향한 오폭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한국군에 대한 오폭<sup>38)</sup>도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세계최강의 미군이 폭격목표로 예상되는 지역들과 최소 150-200Km 이상 떨어져 있던 이리를 최초로 전투에 참여하여 지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오폭했다는 것은 객관사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군의 모든 학살만행을 실수로 돌림으로서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에서 주로 유족들에 의하여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왜곡된, 또는 강요된 인식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오폭'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자 국회 국방위와 익산시에서는 '단순 작전상 폭격'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즉 북한군이 이리 역을 점령하여 철도를 이용하여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하를 위한 도로를 미리 파괴하는 차원에서 폭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작전상의 폭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군 폭격기가 이리 역과 변전소 일대에 폭격을 가했던 50년 7월 11일 북한군의 최전방부대는 천안부근에서 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이 익산주변까지 남진한 것은 약 9일 후인 20일경이다. 따라서 이리를 그토록 시급하게 폭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주변의 민간인들과 철도 직원들을 완전히 소개시킨 후 폭격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지상에서 폭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었다. 뿐만 아니라 작전상의 폭격이라면 다리나 철도만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밀접해 있던 장소와 구분없이 가해졌다. 민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역과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폭격, 군인도 아니었고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지도 않았던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기총소사를 작전상

군력을 마비시켰다.

38) 일본육전사보급회, 이원택 옮김, 『한국전쟁』, P.149-150 1950년 7월 초 오산부근에서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폭격사건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대표적인 오폭사건이었다. 이러한 미군의 오폭은 끈이질 않았고 한국군은 흰 천을 깔고 그 위에도 미군에게서 받은 성조기를 펴놓고 전선을 표시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심지어 미군기의 집요한 폭격에 격노한 한국군들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조종사를 잡아 포로로 취급한 사건까지 있었다고 한다.

의 폭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마디로 '오폭'이나 '작전상의 폭격'이라는 주장은 미군의 양민학살만행을 합리화하고 호도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다.

2) 미군의 익산폭격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만행이었다.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근접지역에서의 민간인 총격과 폭격, 통행 중인 교량폭파, 독극물 살포, 둘째는 전폭기의 폭격과 기총소사 셋째는 교전상황에서의 무차별 총기난사이다.<sup>39)</sup> 물론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온 방법은 전폭기의 폭격과 기총소사였다. 그리고 익산양민학살사건은 바로 미군이 가장 쉽고 편리하여 애용하던 방법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었다.

익산 유족회는 미군의 폭격과 기총소사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즉 2회에 걸쳐서 적군과 아군, 군인과 양민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한 폭격과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기총소사, 그리고 사후에는 반드시 현장을 유유자적하며 확인했던 미군의 모습을 들어 익산지역의 양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학살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 학살의 개연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는 당시 미군은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그 속에 잠입해 있을지 모를 인민군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자위조치로 받아들였으며 "의심이 가는 피난민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미군이 양민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양민들을 적 또는 작전수행의 방해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sup>40)</sup>

그리고 이 점은 미군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양민학살사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1950년 7월 4일 미군은 평택을 폭격하여 역무원과 승무원,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으며 대전과 충남 서천에서는 수십 명의 마을 주민과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난민들이 다리 위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폭파를 단행하고, 폭파작전 완료 후에는 미군기들이 낙동강 변의 피난민 대열과 고령군내 여러 마을에 수차의 용단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해 다수의 피난민과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북 예천과 의성의 여러 마을들에서는 미군 전폭기들이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해 100여 명을 학살하였는가 하면, 충북 단양군 여춘면에서는 피난민 은신처 표시가 확연히 나타나는 피난지에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해 300여 명을 질식사시키거나 불에 태워 죽였다.<sup>41)</sup>

그리고 이러한 미군들의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오폭이나 단순 폭격 또는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었음을 말해주는 기록필

39) 김영범,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제4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대회자료집』, p68.

40) 앞의 책, P.69

41) 한겨레 신문, 1999년 10월 13일자.

름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sup>42)</sup>

### 3) 해방군인가 침략군인가

미군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한국전쟁 종전시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이것은 오인으로 인한 실수가 아니었다. 미국이 변명하는 것처럼 몇몇 준비되지 못한 미군병사들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행동이나,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위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것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전기간에 걸쳐 엄청난 수의 무고한 양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수십, 수백 건의 양민학살사건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의 본질을 축소·은폐할 뿐이다.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우선 일제로부터 한국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전국으로서 적의 재산을 접수하러온 침략군으로서의 미국의 본질에서 연유한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 앞 바다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 민중은 일제의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이들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미국은 조선인민에게 고함으로 시작하는 포고령을 뿌렸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 다.....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제3조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 포고령은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의 침략군으로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이는 인천항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면서 진주한 미군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다.<sup>43)</sup>

침략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가장 먼저 일장기를 성조기로 갈아 달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천명하였다. 미군정은 일제 하치열한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민족자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민족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친일, 친미세력을 규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위한 인적 토대와 적산을 명분으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식민지화에 민중들은 2·7구국투쟁, 4·3항쟁, 여순봉기, 유격투쟁 등으로 맞섰으며 미군정은 이를 철저히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대학살극을 벌였다.<sup>44)</sup>

애당초 해방군이 아닌 침략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했던 미군에게 있어서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와 한국국민은 적이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수행의 대상물에 불과했다. 미국은 한반도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회주의와 국제민주세력, 그리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강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막고 공황상태로 접어들던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만을 극복하면 되었다. 속속 드러나는 미국의 극비문서에서도 밝혀지

42) 한겨레 신문, 2000년 2월 20일자.  
43) 민성일, 『통일교실』, 돌베개, 1994, P.46  
44) 앞의 책, P.47-84

듯이 미군에게 있어 한국민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설사 적이 아니더라도 작전상의 장애가 되면 죽여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sup>45)</sup>

더욱이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확대된 한국민의 반미감정과 상시적인 저항, 저항세력들과 민중들과의 깊은 연대, 재래전과 유격전에 익숙한 북한군의 지상에서의 승리 등을 감안하여 미군의 전술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몰살작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미군과 미군시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국군이든 민간인이든, 자연이든 인공시설물이든 위험한 존재,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46)</sup>

이렇듯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적으로 규정하였기에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전투대상이었으며, 곧 살상과 파괴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들에게 있어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과 비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마저도 엄연한 전투요 작전이었다.

### 7. 나오는 말

결국 익산양민학살을 비롯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양민학살사건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국제적 범죄행위였다. 이러한 범죄적 행위가 가능했고 50년이 다 지나도록 이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물론 아무런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주둔이후 약 10만 건의 온갖 범죄, 광주학살, 매항리 폭격훈련 등을 통해 미군의 범죄적 학살만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미국이 한반도의 한쪽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벌어진 미군에 의한 모든 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온갖 범죄적 만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미국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45) 권영진, 「6.25살상 다시본다」, 『역사비평』, 봄호(계간8호), P.302-303  
46) 앞의 책.

● 대전산내학살사건 - 정준섭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모임)

다시 있어서는 안될 전쟁, 처절, 참혹...  
비극의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조사단

1950년 7월 대전형무소. 각 감방은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관련자 등 정치범들로 포화상태였다. 일반수를 합쳐 정원 1천2백명 시설에 3배가 많은 3~4천여명이 들어차 있었다. 사상범들은 약 2천여명으로 4.3항쟁 관련자, 여순사건 관련자, 남로당원, 전쟁발발 직후 예비검속된 보도연맹(광복이후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원 등이었다.

“50년 7월 5~6일경 헌병대의 S중위가 와서는 계엄군에 맡긴 예치수(군에서 관할해 형무소가 신병만 위탁관리한 재소자. 주로 여순사건과 4.3항쟁 관련자를 지칭-편집자 주)들과 정치범들을 다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툭하면 ‘말을 안 들으면 썩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 부대장이었던 이준영(77)씨의 증언이다.

다음 날인 6일과 7일. 살기 편 군 헌병대가 형무소를 에워싼 가운데 교도관들은 명적계(인명부)를 보고 정신없이 재소자들의 성향 분류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분류는 석방(일반수)과 총살(사상범)로 나뉘었다.

이순일(92·당시 대전형무소장 직무대리)씨는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석간수로서 몇 차례 법원장과 검사장을 찾아갔으나 재소자 처리지침과 분류 기준을 하달 받지 못했다. 분류작업은 백소령이 신분장을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짐짝처럼 트럭에 싣고 학살현장으로

7월 8일 아침, 형무소 직원들이 정치범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냈다. 가석방, 가출옥시키다며 불러내서는 곧바로 헌병대의 손에 넘겼다.

당시 도 경찰국 사찰주임으로 대전형무소학살사건의 총살집행책임자 중 한사람이었던 변홍명(가명)씨가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의 증언.

“그들은 형무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벌써 뉘이 빠져 있었어요. 눈을 가린 채 전깃줄로 굴비쥘듯 몇 사람씩 묶어 트럭에다 2중, 3중으로 실었습니다. ...나중엔 시간이 없어 트럭 적재함에 쭈그러뜨리고 앉히면 위에 또 앉고 차곡차곡 싣고 왔습니다. 꼭 콩나물 시루같이 죄수들을 싣고 총살 집행장으로 끌고 온거지요”

학살책임자는 심중위와 정경감

이들은 대전형무소가 텅 빌 때까지 꼬박 3일간 정치범들을 실어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당시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

“(골령골에) 도착해서 내리라고 하면 앞이 안보이니까 못 내렸어요.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끌어내리면 돼지새끼 구르듯 굴러 떨어졌죠” 변홍명씨의 증언은 이어진다. 변씨에 따르면 총살 집행장에는 경비헌병이 능선을 둘러 서 있었고 미군과 사회유지들도 포진해 있었다.

대전형무소 정치범 학살은 8일 아침부터 10일 저녁까지 3일간 계속됐다. 당시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어 갔는데 2~3일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은 50년 당시 대전형무소를 지켰던 직원들로 구성된 7.1동지회원(10여명)들의 한결같은 얘기여서 현재까지 증언으론 신빙성이 가장 높다.

학살 기간은 사흘이었다. 열흘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양측의 증언이 엇갈린다. 형무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사상범 처형을 3일간 했다고 증언한 반면 현장 총살집행책임자였던 홍씨는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총살)집행은 10여일 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의 얘기도 들어보자. 임선기(77·산내 낭월동)씨. 토박이인 임씨는 “아침때부터 해거름까지 총소리가 광광 났는데 약 일주일간 계속됐다. 막판 이를 동안은 한 밤중에도 총소리가 들렸다”고 당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송민용(66·동구 구도동)씨도 “당시 일주일 넘게 도라꾸(트럭)에 사람들을 싣고 골령이(골령골)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규희(62·당시 국민학교 5학년·대전 거주)씨는 “적어도 열흘쯤 재소자를 옮기는 도라꾸 행렬이 계속됐다” 주장한다.

이처럼 형무소 직원들과 현장 목격자들의 주장이 다른 것은 왜 일까. 변홍명씨는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대전형무소학살사건이 끝난 뒤 3일 동안 대전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해온 5백여명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처형했다”

즉 형무소 사상범외에도 군·경이 후퇴를 시작한 7월 14일~16일 막판까지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골령골에서의 처형이 계속됐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집단학살 지시한 ‘최상부층은 과연누구인가?’

그렇다면 백주 대낮에 자행된 이같은 잔혹한 살인행위를 지시한 학살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7월1일 대전교도소 소요사건에 대해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 등이 ‘민족의 증언’(중앙일보사 간·1983)에서 회고한 바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을 떠난

뒤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과 백성욱 내무부장관 등 몇몇 각료와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훈국장이었던 이선근 대령은 “문제는 대전형무소에 있는 2천여 명의 적색수감자들”이라며 “이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정치범에 대한 처형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다른 한편 이준영씨의 증언에 따라 당시 군대에서 요청한 정치범의 신병인도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미국의 역할도 여전히 의문이다. 92년 2월 말지에 증언한 당시 경찰관이었던 변홍명씨의 진술이 주목된다. 그는 “총살 집행장에는 경비헌병이 능선을 둘러 서 있었고 ‘미군’과 ‘사회유지’들도 포진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씨의 진술은 뒤늦게 해제된 미국의 사진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사진 속에는 학살 현장을 태연히 지켜보는 미군고급장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 뒷짐만지고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가 전쟁당시 대전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300명의 4.3사건 관련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음에도 정작 정부는 단 한 명의 수형자 명부도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교도소도 법무부도 국방부, 충남경찰청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군·경에 의한 끔찍한 골령골 학살 사건은 다시 인민군에 의한 우익인사의 잔혹한 보복학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50년 9월, 유엔군과 국군에 의해 인민군들이 다시 밀리게 되자 퇴각하던 인민군이 1천300여명의 반공인사들을 일렬로 세워 총살하기도 하고 형무소 우물에 처넣었다. 따라서 어쩌면 골령골 사건은 이후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인민군과 미군에 의한 학살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적 양민학살의 도화선이 됐는지도 모른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벌어진 최초의 집단 학살이며 단일지역 최대의 학살이었기 때문이다.

### 전쟁과 분단의 아픔치유할 마지막 기회

대전 참여자치연대 산내 학살 진상조사단 김용우 단장(58·보문감리교회 목사)은 “대전형무소 사건은 좌·우익을 포함 최소 4천여 명이 희생된 한국전쟁 중 최대비극이며 학살과 보복으로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민족사의 아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제주 4.3문제연구소, 여수사회문제연구소, 대전참여연대, 순천참여연대 등이 대전지역 학살사건을 다룰 전국적인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를 들춰내 상처를 덧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사의 비극적 상흔을 치유하려면 감춰진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김 단장의 말이다.

50년 대전형무소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의 참상은 광적인 이념대립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가를 몸서리 처지게 느끼게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반세기가 되는 2000년, 새해 벽두에 모습을 드러낸 골령골 학살 사건은 어쩌면 역사가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8가지 쟁점

#### 쟁점1. 누가 학살명령을 내렸나?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문서(2급)로 분류돼오다 99년 12월 16일 비밀해제된 문서에는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부(최고위층)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의 현재까지 확보된 증언은 당시 군 헌병대의 요구와 이우익 법무부장관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포항앞바다 함상에서 2백여명의 재소자를 학살,수장한 유사사건이 당시 국방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확보돼 있다.

다른 한편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지난 3월 이도영 박사와의 얘기도중 “이 사건의 내막은 당시 김창룡 특무대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당시 육군 정보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제이피의 이 사건에 대한 인지정도와 범위에 여전히 관심의 쏠려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당시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 백성욱 내무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전형무소 적색수감자 2천여명,에 대한 처리 방안이 논의됐음을 추정케 하는 기록(민족의 증언, 1983 중앙일보사 간)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무총리겸 국방부장관 등이 학살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통령인지 국무회의인지를 밝혀낼 공식 문서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한 국방부 등 정부측의 보유문서와 미국측 보유문서에 대한 철저한 확인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

#### 쟁점 2. 미국은 사주했나? 방조,묵인했나?

총살 집행장에 ‘미군,이 있었다는 증언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당시 총살을 집행한 경찰이 “총살 집행장에 미군이 포진해 있었다”고 했고 ‘미군 장교등이 짚차

두 대에 나눠 타고 현장에 나타나 처형장면을 참관했다'는 당시 [런던 데일리 워커]지 보도기사도 확인됐다.

사진자료에는 미군장교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도 잡혔다. 실질적인 작전권을 행사한 미군이 정치범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에서 학살된 뒤까지 사진을 찍은 것이다.

또 하나 학살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7월 1일, 이미 미국 24사단이 대전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군의 처형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조.묵인 범위를 벗기 어려우며 당연 그 이상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다.

### 쟁점 3. 학살기간 사흘인가, 열흘인가?

이 문제는 쟁점이 되는 희생자 수를 규명해 내는 열쇠이기도 하다. 현재 증언자들은 3일에서 10일까지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각 증언자에 따라 희생자의 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77) 등 당시 교도관들은 50년 7월 8-10일 오전까지 사흘(정확히 이틀 반나절)이라고 증언했고 해제된 미 비밀문서의 기록은 "3일동안 진행됐으며 7월 첫째주에 일어났다"고 돼 있다.

미국 한국전쟁 사학자인 브루스커밍스 교수는 [런던 데일리 워커]지 기사를 인용, 50년7월2일-6일이라고 적고 있다.(한국전쟁의 기원,프린스턴대학 출판부,1990년)

학살기간이 열흘이라는 증언은 우선 총살 집행 책임자(당시 도경찰국 사찰주임)인 변홍명(가명) 씨에 의한 것으로 '처음 3일동안은 나무에 묶어놓고 죄수들을 처형했고, 그 이후에는 죄수들을 앉히거나 눕혀놓고 처형했으며, 죄수처형이 끝난 그 뒤 3일동안은 보도연맹원과 불순분자로 끌려온 5백여명을 계속 처형했다'며 "10여일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변씨의 주장은 당시 총살집행 책임자인데다 생생한 현장 증언이어서 신빙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산내에서의 "적어도 열흘 쯤 죄수를 싣고 들어가는 도라꾸(트럭)행렬이 계속됐다"는 다수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변씨의 증언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희생자 수와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보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 쟁점 4. 몇 명이 죽었나?

희생자 수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재 증언자들은 희생자 수에 대해 600여명에서 3000여명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있다. 미국립문서보관소의 기록에는 1천 800여명으로 돼 있다. 물론 희생자 수에 따라 학살된 기간(일수)도 달라진다.

600여명이라는 주장은 당시 정치범을 헌병대에게 내어준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 등 근무 교도관들의 증언으로 "당시 정치범을 수용하던 감방 수의 규모로 그 숫자를 산출"한 것이다. (처형 일수 3일,7월8-10일)

1천800여명은 해제된 미 비밀문서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대전에서의 1천800여명의 정치범 처형은.."으로 명시돼 있다. (처형 일수 3일, 7월 첫째주)

3천여명이라는 주장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무덤규모 등에 따른 것인데(처형 일수 10일)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학살기간은 증언자에 따라 50년 7월 2일부터 군.경이 후퇴하기 시작한 7월 중순경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각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학살이 7월 2일부터 중순경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증언자 안아무개 씨(78,경기도 거주)는 7월 2일 동료들이 희생된 것 같다고 했고 대전 대덕구 갈현리 주민은 당시 마을 희생자들이 7월 5일 처형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확인결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내고 있는 제사일도 7월1일, 7월 5일 등 다양한 일자가 나왔다.

희생자가 3천여명에 이른다는 결정적인 증언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외에 타지역에서 출소됐다 풀려난 정치범들이 또 다시 붙잡혀 함께 처형됐다는 것과 정치범 외에 보도연맹원, 좌익불순분자 등 민간인 학살에 관한 것이다. 이밖에 그동안 알려진 1.2학살지 외에 3학살지(산사태로 유실됐다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증언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

### 쟁점 5. 민간인 학살 있었나, 없었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나? 이에 대해 증언자들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총살집행책임자는 "대전형무소 학살이 끝난 뒤 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해 온 5백여명을 처형했다"고 밝혔고 "상당 수의 10대 소년들도 처형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밖에도 유가족들의 증언에는 농사짓던 아버지가 형님이 전쟁이 터지자 경찰에 끌려간 후 처형됐다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산내에서 좌익 정치범 처형사건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대학살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은 '학살의 성격'을 달리하는 중요한 문제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증언과 사료조사가 필요하고 긴급하다.

### 쟁점 6. 사건의 열쇠, 심증위를 찾아라!

당시 학살 현장 책임은 군인들이 쥐고 있었고 그 책임자가 심증위였다. 따라서 정치범을 인계받고 현장 학살을 진두지휘한 심증위의 증언은 이 사건의 의혹을

푸는 '열쇠'라 할만하다. 그가 생존해 있다면 현재 나이는 약 80세 남짓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심중위와 그 소속부대원을 찾는 작업은 순조롭지 않다.

쟁점 7. 당시 '수형인 명부' 있나 없나?

수형인 명부를 찾아내는 것은 희생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자료가 된다.

일단 제주 4.3 사건과 관련자 300여명의 수형인 명부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돼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순사건 관련자 16명도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50년 10월경 대전형무소 수형인 명부와 당시 교도관 인사카드 등도 정부기록보존소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유독 학살사건 당시의 '수형인 명부'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찾을 수 없다" "자료가 없다"는 등 매우 미온적인 답변뿐이다. 정말 없는 걸까?

쟁점 8. 정부, 왜 뒷집지고 있나?

잇달아 드러나는 한국전쟁 당시의 참혹한 실상들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다.

충격적인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죄악"이다. 당시 비극적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일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통일로 가는 수순'임을 정부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참고자료/ 사건일지>

- \* 6.27/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 대전으로 피난
- \* 7. 1/ 이대통령 부산 피난. 대전형무소 수감자 탈옥시도. 임시 국무회의(충남지사 공관) 미국 24사단 대전도착
- \* 7. 2-10/ 대전형무소 수감 좌익인사 및 군 예치수 처형된 것으로 추정.
- \* 7. 8/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대전에서)
- \* 7.11-14/ 보도연맹자 등 좌익계 인사 골령골서 계속 처형(인원 모름)된 것으로 추정.
- \* 7. 13/ 작전지휘권 미국으로 이양
- \* 7. 14/ 대전형무소 폐쇄, 형무소 특경대원 철수.
- \* 7. 20/ 북한군 대전장악

\* 9. 28 전후/ 유엔군 서울 수복,대전 형무소 우익1천3백여명 집단처형.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골령골 사상범 집단 학살일자를 50년 7월2-3일 학살장소를 준비하고 7월4-6일(3일간) 집단학살했다고 주장했고 대전형무소 당시 근무 교도관들은 동년 7월 6-7일 처형장소를 준비하고 7월8-10일(3일간) 집단 처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총살 집행자중 한 사람은 7월초부터 10일동안 처형했다고 증언했는데 정황상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 경과보고

- 92년 2월/ 「월간 말」 통해 최초 보도
- 95년 4월/ -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내 자체 진상조사 착수,
  - 신공안정국내에서 탄압 빌미우려 공론화하지 않기로 함
- 99년 10월말/ 대전참여자치연대내 「산내학살 진상조사반」 구성, 자체 조사 착수
  - 진상 조사반: 김용우(보문감리교회 목사), 정현태(전 대전시민포럼 간사), 복진국(대전참여자치연대 부장), 강성복(향토사학가), 심규상(충남 지역신문협회 기자), 강창일(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전 4.3문제 연구소장), 이규희(당시 현장 목격자)
- 99년 12월말/ 제주 이도영 박사 통해 미국에서 해제된 비밀문서 발견, 대전형무소 1800명 집단처형 미정보관 보고서. 당시 학살 현장 사진 발견, 제민일보 통해 첫 보도
- 2000년 1월초/ 한국일보 후속보도 후 전국 여론화
- 1월/ 진상조사반 현장증언 마무리
  - (당시 산내면 낭월동, 기성동 등 주민 증언과 형무소 관계자 증언채록)
- 2월/ -진상조사반 증언채록 내용 「월간 말」 2차 후속보도
  - 제주 4.3문제연구소, 여수사회문제연구소(여순사건관련), 대전참여연대 3단체 공동 피해 신고센터 개설.
  - 신고센터 개설 후 대전 30여건 피해사례 접수, 자료 관리중
  - 제주에서 4.3관련자 300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자료 발견
  - 여수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16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증언통해 확인.
  - 산내학살 현장부근 희생자 유골 다량 매장돼 있음을 확인(굴삭기 이용)
- 3월/ - 대전교도소, 도경찰청, 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대전시 등 행정정보공개 신청
  - 으나 '보유자료 없음' 통보받음.
  - 제주, 여수, 대전 3단체 연석회의 통해 '대전형무소학살사건 범국민대책기구' 결성 추진 결의
  - 총선 이후 4월내 전국 회의 개최기로
  - 대전시 소유 지적도 통해 산내학살 현장 부근으로 경부고속철도 관통 예정 확인
  - 현장보존 당면 문제로 부상
- 4월/ 19일 유가족 준비모임 및 결성회의
  - 27일 실무반 준비모임

- 5월/ 2일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결성회의
  - 17일 2차 유족모임(산내 현장방문, 4.3 유가족간담회 진행)
  - 19일 국제인권학술심포지움참석
  - 26일 전국유가족모임 결성준비회의
- 6월/ 9일 전국유가족모임
  - 14일 3차 유가족모임(산내위령제 기획안검토)
  - 4.3제주 유가족간담회

## 예정일정

- 7월 8일
  - 갈등과 단절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 경북문경석달마을 - 채의진 대표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석달동(문경) 양민집단대학살(Soktal Massacre)실상

(속칭: 문경양민학살사건)

1. 학살(참살) 전모요약

서기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15일) 정오경 24가구에 127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 무장군인 70여명이 느닷없이 마을에 들어 닥쳐 자신들에게 대접이 소홀하다는 것을 트집잡아 주택 24가구 전체를 불태우고, 주민 전체를 마을 앞 논바닥과 마을 뒤 산모퉁이 두 곳에 모아 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대학살을 자행했다.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학살당한 주민들은 산 넘어 석봉리 동회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청장년들과 학교에서 하교하던 어린 초등학생들이었다. 마을 앞 논 바닥에서는 1차 학살을 끝내고 산 사람들은 살려 줄테니 일어서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재사격을 가하여 확인 사살까지 자행했다.

불과 한 두시간 동안에 마을의 집들은 모두 불탔고, 마을 주민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일부 생존자 중 중상자가 10여명이었으나, 그들 중에 2명은 이날 날이 어둡기 이전에 그리고 2명은 자정 이전에 사망했고, 1명은 입원 가료 중 사망하여 이 날 국군들의 만행으로 학살된 마을 주민은 모두 86명이었다.

피학살자들 중에는 5세 미만의 어린이 11명을 포함해서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32명이였었고,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여자가 42명이였었다. 피학살자들 중에는 초등학생도 6명이나, 포함되었었고, 타동민도 1명 있었다. 전가족이 몰살된 집이 6세대였으며, 여자 1명만 생존했거나 남자 1명이 생존했어도 고령이어서 대가 끊긴집이 6세대였다. 학살 군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 집들을 모두 불태워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빨갱이는 커녕 티끌만한 죄도 없는 마을 주민들 전부를 빨갱이로 몰아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후 오후 2시경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아비규환의 참살 현장에서 시신 밑에 깔려서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생존자들은 처절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뒤엎켜서 숨겨 있는 시신들을 뒤져서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 내고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었다. 해가지자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생존자들은 줄지에 당한 너무도 기막힌 현실에 슬픔과 분노도 잊은채 추위와 공포에 쫓겨 가족들의 시신을 참살 현장에 그냥 남겨둔채 일단 피신했다. 일부는 가까운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친인척 집을 찾아갔고, 일부는 해방전 중석을 채굴하다가 폐광이 된 마을 아래쪽에 위치한 중석굴에서 밤을 세웠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다. 많은 시신들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버렸었다.

2. 피학살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피학살 당시연령	비고
김명월(金明月) 전병하(全炳河)	여 남	1915. 1. 15. 1936. 5. 21.	35 14	
전춘달(全春達) 전병기(全炳琦) 전희자(全喜子)	남 남 여	1909. 4. 29. 1936. 10. 5. 1943. 5. 15.	41 14 7	
채주순(蔡周順) 정순연(鄭順連) 채철진(蔡哲鎭) 채만출(蔡萬出) 전본동(全本東)	남 여 남 남 여	1929. 7. 13.	37 21 3 29 69	
채남진(蔡南鎭) 김영춘(金永春)	남 여	1883. 9. 27.	67 77	
박재춘(朴在春) 김봉자(金鳳子) 박아기(갓난애)	남 여 남		30 20 1	
황기수(黃基壽) 엄계흥(嚴桂興) 황출주(黃出周) 황의인(黃義仁) 황갑순(黃甲順) 황점용(黃點用) 황아기(갓난애)	남 여 남 남 여 남 남	1882. 1. 10. 1913. 6. 16. 1934. 11. 28. 1934. 12. 1. 1940. 1. 16.	68 37 16 16 10 3 1	
김용환(金容煥)	남	1934. 3. 28.	16	
채순례(蔡順禮) 남수영(南秀永) 이경대(李京大) 남수창(南秀昌) 남희목(南喜木) 남아기(갓난애)	여 남 여 남 남 남	1909. 1. 21. 1932. 4. 25. 1934. 3. 20.	41 18 23 16 2 1	
채주민(蔡周民) 장영희(張永姬) 채갑진(蔡甲鎭) 채훈진(蔡薰鎭) 채갑순(蔡甲順) 채외순(蔡外順) 채대진(蔡大鎭) 채점식(蔡点植) 채홍복(蔡鴻福)	남 여 남 남 여 여 남 여 남	1896. 6. 22. 1916. 8. 17. 1934. 1. 4. 1937. 1. 20. 1938. 3. 1. 1941. 1. 18. 1940. 2. 27. 1942. 12. 11. 1943. 3. 20.	54 34 16 13 12 9 10 8 7	국민학교 2년생 국민학교 3년생 국민학교 2년생
채주태(蔡周泰) 채창진(蔡昌鎭)	남 남	1901. 3. 15. 1935. 12. 26.	49 14	
황기해(黃基海) 황석주(黃石周) 황봉구(黃鳳九) 채주락(蔡周洛)	남 남 여 남	1892. 2. 2. 1927. 3. 3. 1942. 2. 25. 1882. 9. 18.	58 23 8 68	



성명	성별	생년월일	피학살당시연령	비고
채홍명(蔡鴻明)	남	1936. 4. 8.	14	타동(김용리) 거주자
채주철(蔡周撤)	남	1882. 7. 1.	68	
권가국(權佳局)	여	1890. 1. 10.	60	
채세진(蔡洗鎭)	남	1910. 12. 11.	40	
민접연(閔接連)	여	1907. 3. 4.	43	
채홍목(蔡鴻牧)	남	1931. 3. 20.	19	
채홍래(蔡鴻來)	여		5	
채영진(蔡營鎭)	남	1919. 8. 23.	31	
황양동(黃陽東)	여		70	
채주액(蔡周昞)	남	1887. 4. 1.	63	
이계용(李桂用)	여	1912. 10. 7.	38	
채아기(갓난애)	여		1	
홍남순(洪南順)	여	1869. 9. 10.	81	
채명분(蔡明分)	여	1930. 2. 27.	20	
김원지(金遠池)	여	1968. 7. 10.	82	
김악이(金岳伊)	여	1905. 8. 15.	45	
채명진(蔡銘鎭)	남	1923. 8. 25.	27	
정정희(鄭貞姬)	여	1920. 2. 2.	30	
김임섭(金任燮)	여	1915. 1. 14.	35	
채성순(蔡成順)	여	1935. 10. 21.	15	
채두용(蔡斗龍)	여	1938. 12. 3.	12	
채영해(蔡永海)	남	1941. 2. 8.	9	국민학교 2년생
김병철(金丙喆)	남		67	
김수용(金壽用)	남	1912. 1. 4.	38	
우일분(禹一粉)	여	1920. 11. 21.	30	
김병영(金炳英)	남	1940. 3. 25.	10	국민학교 3년생
김상연(金尙連)	여	1943. 4. 15.	7	국민학교 1년생
김병준(金炳俊)	남	1947. 8. 17.	3	
정유생(鄭有生)	여	1908. 10. 21.	42	
채미준(蔡美俊)	여		14	
채홍수(蔡鴻洙)	남	1947. 2. 28.	3	
정치수(鄭致秀)	남	1894. 5. 14.	56	
박원연(朴元連)	여	1889. 7. 20.	61	
장차양(張且陽)	여	1924. 8. 8.	26	
정아기(갓난애)	여		1	
권화일(權華一)	남		44	
이씨(李氏)	여		41	
권기매(權基梅)	여		11	
김분리(金分利)	여	1897. 3. 2.	53	
이미분(李美粉)	여	1938. 6. 27.	12	
이점술(李點述)	여	1941. 2. 26.	9	
장수금(張水金)	여	1909. 1. 6.	41	
계				86 명

3. 학살(참살) 직후 사후 수습

(1) 피학살자들 시신 처리

참살 다음 날인 1949년 12월 25일 문경경찰서 및 산북지서 경찰관 수명이 사 진사(점촌. 국민사진관 주인)를 참살현장에 데리고 와서 학살실상을 확인하고 불 타버린 마을의 참경과 피학살자들의 시신을 촬영해 갔다.

폐광 된 동굴에서 밤을 샌 생존자들은 부상자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각 자 자신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서 가족별로 한곳으로 모았다. 그런데 웬지 밤새 많은 시신들이 불에 타서 자기 가족임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들이 상당수 있었다. 생존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일단 인근동네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 을 찾아서 흩어졌었다. 하루가 더 지나서 생존자들이 참살현장에 다시 모였다. 웬지 관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동민들이 아무런 죄없이 참살 당한지 3일 이 되던 날 참살자들의 시신은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온 친인척들에 의하여 관도 없이 입은 옷 그대로 일곱 묶음의 새끼줄에 묶여서 가까운 야산에 가매장 됐다. 전 가족이 몰살되어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시신들은 참 살 현장 근처의 밭에 가매장되었다. 불태워진 시신들 중에서 끝내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이도 여럿 있었다.

(2) 생존자들 실태

당시 석달동 거주 주민 127명 중 생존자들의 수는 출타했던 주민들을 포함해 서41명 이었다.

생존자들 중 부상자들은 점촌과 김천으로 분산되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중 상자들 중 권가옥씨(여.61세)는 입원가료중 사망했고 이목열씨(남29세)는 한쪽 손 을못쓰는 불구자가 되었으며 강희수씨(여,30세)는 한쪽 다리를 못쓰는 불구자가 되었다.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존자들은 참살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가매장 한 후 집 한채 없이 허허벌판으로 변해버린 고향을 등지고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을안고 모진 목숨 죽지 못해 멀리 친인척들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다.

1950년 1월 17일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이 현지에 와서 생존자들을 위로 한 후 동행한 이정희(李正熙) 문경군수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다녀간 후 생존자 1세대당 미군용 담요 1장씩과 약간의 식량이 관 으로부터 전달되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다녀가기 이전까지는 관의 구호가 전 혀 없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친인척들의 신세를 지는 수 밖에 없었 다. 하지만,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한집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서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이듬해 봄에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 갈 때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다.

이듬 해 봄이 되어 주택건축 보조금조로 관에서 생존자 1세대당 16,000원 씩

의 보조금이 전해졌다. 생존자들중 대부분은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관에서 준 보조금을 보태어 움막같은 조그만 집 한채씩을 마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새 삶을 시작했다. 주택은 주로 흙집이었으며 14세대에 32명의 생존자들이 입주했다. 새 마을의 위치는 참살 당시의 구동에서 아랫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다. 가족이 1명뿐인 집이 7세대나 되었다.

(3) 정부 당국의 사후처리

서기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에 무장군인들이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달리 석달동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24가구의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127명의 마을주민 대부분을 학살한 대양민학살은 언론들도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국군들의 만행이 저질러진 후 3주쯤 경과한 1950년 1월 17일 예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현지에서 와서 학살(참살) 실상을 파악하고 생존자들을 접견하고 위로했다. 생존자들을 접견한 곳은 학살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김룡국민학교였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현지를 다녀간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익성(李益成) 문경경찰서장과 이기용(李基用) 산북지서 주임이 직위해제되어 경찰복을 벗었다. 그리고 국군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석달동 양민학살이 공비들이 저지른 소행으로 둔갑해 버렸다.

우리마을 주민들의 당시 피학살자들의 제적등본을 들춰보면 1949년 12월 24일 국군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은 모두가 공비들의 소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호적정리하도록 보고한 장본인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경찰서장 자리를 물러난 이익성 서장의 후임인 김이화(金利和) 문경경찰서장이다.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엮을것이다. 국군들이 불과 한·두시간 동안에 24가구의 주택 전체를 불태워서 한 동네를 한날 잿더미로 만들고 아무런 죄도 없는 마을 주민 127명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서 마을 주민 전부를 학살하다시 피한 천인이 공노할 이런 기막힐 국군의 만행을 언론에조차도 일체 보도되지 않은채 결국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은 공비들의 소행이었다고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 당국에서는 피학살자들의 장례(가매장) 때도 무관심했지만 움막같은 아주 불품없는 조그만 집 한채씩을 지어서 입주한 이후에는 더구나 무관심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 당국과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4. 석달동 양민학살 진상규명 활동 요약

• 1960년 5월 18일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사건이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됨.

• 1960년 5월 27일

채의진(蔡義鎭) 국회와 정부당국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진상규명 호소문 전달.

호소문 내용 : 1. 학살 이유를 밝혀라

2. 학살자를 색출 처단하라

3.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호소문 전달 기관장 : 내각수반, 참의원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 1960년 6월 3일

국회조사단 현지 방문 현장 답사 및 생존 유족들로부터 증언 청취. 호소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국회 조사단원은 주병환(민주당) 윤용구(자유당)두 의원이었으며 경북에서는 문경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였음.

• 1960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 (참의원 민의원 합동)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활동 보고와 함께 군경검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학살자를 색출 악질적인 학살자의 엄중 처단과 아울러 피학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정부에 촉구했음.

• 1960년 8월

새 정부 및 새 의회 탄생 : 12년간의 자유당 독재 정권하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 던 민주당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집권함.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끈 군사 쿠데타 발발. 학수 고대했던 양민학살진상규명 좌절됨.

• 1961년 5월 18일

박정희 군사정권은 유족들이 1960년 5월 27일 당국에 제출한 호소문 내용의 일부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 표고령 제18호를 발동. 유족 중 채홍락(蔡鴻樂-당시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2년 재학)과 이목열(李穆烈-당시 반장)두 사람을 강제로 연행 구속시키고, 호소문을 직접 작성 제출한 채의진(蔡義鎭-당시 서울문리대 영어과2년)을 수배함.

• 1961년 8월

구속된 채홍락, 이목열 두사람 2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석방 그 이후 생존유족들은 30여년간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입도 뺏기지 못하고 쥐 죽은 듯 살아옴.

• 1990년 3월

월간 「말」 지 3월호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대대적 보도함.

• 1990년 7월

「말」 지 정희상(丁喜相)기자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뽀) 책자 발간,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을 8.15광복 후 국군에 의한 최초의 순수 양민집단대학살로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양민학살로 취급함.

- 1993년 2월 25일 : 김영삼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시대 출범
- 1993년 4월 : 제14대 국회 출범
- 1993년 5월 3일 : 유족회 결성  
명 칭 :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유족회  
회 장 : 채의진(蔡義鎭)
- 1993년 5월 19일  
여류 작가 남상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어린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흰뱀을 찾아서」가 제17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문예지 세계의 문학(계간) 1993년 여름호에 발표(KBS 2TV방영)
- 1993년 5월 20일 : 정부당국과 관계 요로에 탄원서 제출  
탄원서를 제출한 곳 : 김영삼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권영해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김종필 민자당 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이만섭 국회의장
- 1993년 6월 20일 : 남상순 소설 「흰뱀을 찾아서」 단행본 발간
- 1993년 7월 23일 : 군의회의원 학살현지 답사  
문경군의회 의원 전원(9명)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 답사 및 증언 청취. 유족회장 채의진 1시간동안 참살전도 생생하게 증언 함. 김대영의장 유족들에게 위로금 100,000원 전달. 우곡리에서 석달동 마을까지 내년도 예산에서 도로포장 약속
- 1993년 8월 4일  
문경군 의회 김대영 의장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 촉구 건의서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제출
- 1993년 12월 18일 : 합동위령제 봉사  
제1회 추모행사 및 합동위령제 봉사(12:00~13:00). 내빈 84명, 유족 51명 참석  
아, 통한 44년」 문경양민학살백서(90쪽) 200부 발간 배분
- 1994년 1월 31일  
아, 통한 44년」 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판)(217페이지) 1,000부 발간
- 1994년 2월 28일  
아, 통한 44년」 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판)(230페이지) 1,000부 발간
- 1994년 3월 14일  
산북면 관내 기관장 및 유족대표 연석 회의개최(장소 : 산북면장실)
- 1994년 4월  
경상북도의회 유경탁의원이 제81차 도의회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 및 국회와 정부에 해결 촉구
- 1994년 11월 25일  
국회 황낙주 국회의장에게 제2차 탄원서 제출
- 1994년 12월 1일

- 아, 통한 45년」 증보 3판 1,000부 발간
- 1994년 12월 7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86위 45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 1995년 1월 5일  
국회의원 전원 (299명)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을 촉구하는 제2차 탄원서 제출
- 1995년 2월 18일  
민주당 김원웅(金元雄)의원과 민자당 이승무(李昇茂)의원이 주축이 되어 현역 국회의원 79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
- 1995년 3월  
주간지 「시사저널」 제 282호 (95년 3월 23일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진실폭로
- 1995년 5월 6일  
MBC 안동문화방송국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실상을 라디오 특집프로(45분짜리) 로 제작 방송함. 타이틀 : 「석봉리 그해 겨울의 비가」
- 1995년 5월 10일  
유족회장 채의진(蔡義鎭)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를 통해 1949년 12월 24일 국군이 저지른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허위 보고한 내용을 담은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1949. 12.20)를 입수함. 이 비밀 문건은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것임.
- 1995년 6월 6일  
케이블 TV Q채널 (채널25)에서 「문경 1949」 다큐멘터리 제작 3회 방영 (방영 시간 50분)
- 1995년 7월 2일 -16일  
채의진(유족회장) 7월 2일 방미.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박사 (Maryland주 거주) 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에 관한 「미국립문서보관소」 소장비밀문건 입수를 청탁하고 16일 귀국
- 1995년 12월 20일  
아! 통한 46년 」 1,000부 발간
- 1995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46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 1995년 12월 18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4대 국회 177차 정기국회에서 통과
-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법률 제5148호)

- 1996년 5월 : 제15대 국회 출범
- 1996년 12월 24일
-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47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 1998년 1월 5일
-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석달대학살」에 관한 자료 수집을 부탁한지 2년 반만에 1차 자료입수통보 받음.
- 발견장소 : 미국버지니아주 소재 맥아더 기념관 문서관. 학살부대명 학살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려줌 하지만 누구에게도 귀뜸하지 말 것을 약속 함.
- 1998년 2월 25일 : 김대중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출범
- 1998년 4월 28일
- 김대중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299명)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전달
- 1998년 5월 12일
-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 1998년 6월 12일
- 천용택 국방부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조속한 해결 촉구 탄원서 제출
- 1998년 6월 11일
- 미국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서 전화음. 학살 주동자 3명 명단 입수, 육군 제3사단 2연대 3대대 7중대 3소대의 유진규 소위와 김점동 하사와 2소대의 안택효 중사가 작당하여 2소대와 3소대 병사 66명을 이끌고 학살 자행함.
- 1998년 6월 16일
- 오전 11시 미국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팩스 전송
- 오수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방선주(方善柱) 박사와 전화 통화함.
- 통화내용 : 맥아더 기념관 문서관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관련 문건 추가 입수.
- 당시 미국 정부에서 학살자 처벌 요구 했으나 한국정부에서 소극적 대응, 한국 정부 고위층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관련 문서 이송 문제 해결 촉구 3개월 내 해결치 않으면 다른 방법 모색 늦어도 금년에 해결 가능하다고 믿음.
- 1998년 7월 2월 -13일
- 7월 2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 박사 면담차 채의진(蔡義鎭) 방미 13일 귀국 8월 13일 -14일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차 방한시 비밀문건 넘겨주기로 약속.
- 1998년 7월 27일
-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팩스 전송
- 1998년 8월 7일
- 오전 10시 30분 채의진(蔡義鎭), 채홍빈(蔡鴻彬) 행정자치부 방문 이중희씨 면담
- 오후 3시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방문 홍순우씨 면담.
- 방선주(方善柱) 박사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미국동군사령부 정보일

- 지」 등 4건의 비밀문건 입수함.
- 1998년 8월 9일
-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서 서한 받음 「한반도 전쟁의 근원」이란 책을 저술한 미국무성 고위 관리 존 메릴(John Merrill)박사 소개 받음.
- 1998년 9월 21일
- 미국무부 고위 관리 존 메릴(John Merrill-한반도 전쟁의 근원 저자) 박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문건들은 요청하는 장문의 서한 팩스로 전송함.
- 1998년 11월 13일
- 채의진(유족회장) 서울시내 각 방송사와 각 일간지 신문사를 방문 「미국극동군사령부 정보일지」 제공 보도 의뢰
- 1998년 11월 16일
- 김학문(金學文) 문경시장, 문경시의회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19일
- 주간지 「시사저널」 제473호(98년 11월 19일자) 「문경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미국극동군사령부 매일 일일정보일지」 공개 보도.
- 1998년 11월 19일
-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 경북도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23일
- 국회 국방위에서 하경근 의원이 천용택 국방부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책 질의
- 1998년 11월 24일
- 천용택 국방부 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국동군사령부정보일지」 첨부 2차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26일
- 박준규 국회의장과 국회국방위원 전원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국동군사령부 정보일지」를 첨부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30일
- 국회의원 전원(299명), 3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총재에게 미국극동군사령부정보일지 첨부 탄원서 제출
- 1998년 12월 24일
-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49주기 추모의례 및 합동위령제 봉사
- 1999년 2월 12일
- 경상북도 의회 채희영(蔡熙永)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의회 의원 전원 (장성호 의장의 59명)과 신영국(申榮國-문경, 예천지구 국회의원) 의원 유족대표 채의진(蔡義鎭), 황의종(黃義鐘) 공동으로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서 제출함.
- 1999년 3월 30일
- 경상북도의회 이시하(李時夏) 의원이 도의회 134차 본회의에서 박광희 행정부

지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한 도차원의 해결책 질의함.

- 1999년 4월 20일  
신영국(한나라당)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청원 제안 설명.
- 1999년 5월 20일 -28일  
대한매일신보사 정운현(鄭雲鉉) 기자 추가로 입수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국동군사령부정보일지」 3건을 5월 20일자 「대한매일」과 5월 28일자 「뉴스피플」 제370호를 통해 보도함.
- 1999년 6월 25일  
채의진 (유족대표) 은 MBC포럼 (안동문화방송)에 출연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의 실상과 그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 45분(23:30-01:15)간 정윤희 기자와 대담 방영함.
- 1999년 7월 3일  
MBC 문화방송 아침 7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보도함.
- 1998년 8월 18일  
주간지 「내일신문」 제295호(1999. 8. 18)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보도함.
- 1999년 9월 13일  
9월 13일자(제18762호) 「대한매일」 「대한광장」란에 방선주(方善柱) 박사 「민주기지론」을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 촉구
- 1999년 10월 1일  
중앙일보 10월 1일자(제 10793호) 사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 촉구
- 1999년 10월 5일  
10월 5일 KBS 1TV 밤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하여 공중과 방송에서는 최초로 보도함.
- 1999년 10월 12일  
MBC(안동문화방송) 밤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방영 보도함.
- 1999년 10월 13일  
MBC(안동문화방송) 아침 7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방영 보도 함.
- 1999년 10월 14일  
주간지 「시사저널」 제520호(199. 10월 14일)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보도 함.
- 1999년 10월 14일  
「한겨레신문」 제3622호 (1999. 10. 14) 수도권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보도 함.
- 1999년 10월 21일  
KBS 청주총국 보도함. 10월 21일 「충청페트럴」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 사건」 방영.
- 1999년 11월 4일  
주간지 「시사저널」 제 523호 (1999. 11. 4)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해결 촉구 보도함.
- 1999년 12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미국동군 사령부 정보일지」 첨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제2차 탄원서 제출
- 1999년 12월 16일  
경북도의회 「양민학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 1999년 12월 24일  
「아, 통한 50년」 책자 발간 배포
- 1999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피학살자 50주기 추모의례 및 합동위령제 봉사
- 1999년 12월 24일  
MBC(안동문화방송) 저녁 6시 30분 및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50주기 합동 위령제 봉사 보도함.
- 1999년 12월 25일  
「한겨레신문」 제3694호(1999. 12. 25)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촉구함.
- 2000년 1월 13일  
주간지 「시사저널」 제533호(2000. 1. 13)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관계당국에 촉구함.
- 2000년 1월 19일  
경북도의회 「양민학살 진상규명특위」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 답사
- 2000년 2월 25일  
「석달동(문경) 양민집단 대학살(Soktal Massacre) 실상」 발간
- 2000년 2월 25일 ~28일  
채의진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주인권학술회의2000」 참가
- 2000년 3월 18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덕수합동법률사무소 조용환 변호사 주도)
- 2000년 4월 18일  
국방부 담당관 정석균씨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 방문 답사
- 2000년 5월 17일 ~19일  
제4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 참가

## 5. 맺음말

김영삼(金泳三)이 이끌었던 문민정부시대는 물론 김대중(金大中)이 이끄는 국민정부시대에도 그동안 20여차에 걸친 나의 애절한 탄원에 대한 관계당국의 답신은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근래 대한민국의 집권자와 정치인이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떠벌리는 문민정부니, 국민정부니, 과거창산이니, 정의사회구현이니, 민생이니, 인권이니 하는 말들은 그 용어의 참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집권유지를 위하여 국민들을 기민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벌리는 미사여구에 불과했었다.

지난 1999년 12월 24일은 아무런 죄도 없이 순박하기만 했던 석달동 주민들이 잔학한 국군들에게 집단학살 당한지 5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때 티끌만한 잘못도 없이 너무도 억울하게 학살당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를 조출하게 봉사했었다. 50주기 합동위령제에는 1993년 12월 18일 44주기 합동위령제를 봉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김학문(金學文) 문경시장과 이성규(李聖揆) 문경경찰서장이 위령제에 참석했었고, 신영국(申榮國) 국회의원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으며 채희영(蔡熙永), 이시하(李詩夏) 경상북도도의회의원과 문경시의회 의원들과 많은 관내 기관장들과 단체장들이 참석했었다. 이의근(李義根) 경상북도지사도 꼭 참배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는 조화로 대신 했었다. 무엇보다도 서울, 대구, 상주 등 먼 곳에서도 나의 친지들이 많이 와서 억울하게 가신 영령들을 위로해 주었다.

1999년 12월 24일 제50주기 합동위령제를 봉사하기에 앞서 나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탄원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에게 제출했었다. 그 날짜는 1999년 12월 1일이었다. 탄원서 내용은 1949년 12월 24일 잔악한 국군들의 만행으로 저질러진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의 실상과 당시 그에 대한 정부당국의 야비한 사후처리와 50년 동안 우리 유족들이 겪은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 그대로 천명하면서 그동안 3차에 걸쳐 입수한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미국동군사령부정보일지」 7건 등 모든 증거물들을 첨부하여 우리들의 억울한 한을 제발 빨리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었다.

그리고 만약 빨리 해결안되면 50주기 합동위령제를 봉사하기 이전에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답신이라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덧붙혔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침묵이었고 단지 국무총리실에서만 국무조정실장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답신이 왔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하여 당실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먼저 가족을 잃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입장은 우선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 노력을 집중하고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 유사한 사건 중 증거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근리사건 해결후 사례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였다.

얼마전인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했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이끈 문민정부는 1980년 5월에 일어난 5·18 광주사태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에 발생한 거창사건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8·15광복이후 전지도 아닌 평시인 1949년 12월 24일에 발생했던 한국에서의 최초의 순수양민집단대학살인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사건」은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정부에서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공포하면서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사건」은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다. 옛 속담에 냉수도 선후가 있다고 했는데 양민학살의 시기로 보던 규모로 보던 내용으로 보던 그 무엇을 비교해 봐도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사건」이 우선 처리되었어야 했는데 형편의 원칙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정권의 말로가 과연 어떨지 뻔히 보인다.

구 정권하에서 나 현정권하에서 집권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 그들은 다 그렇고 그런 족속들이니 그렇다치고, 정말로 양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과거 한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36년간(1909~1945)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침략이며 식민통치였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남녀가 강제로 징용되어 남자는 전장의 총알받이로, 여자는 일본군의 위안부로 회생을 당했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들을 그들의 역사교과서에 왜곡해서 기록했던 것이 세상에 알려졌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당시 한국의 모든 매스컴들이 무척이나 흥분했었고 한국인 모두가 분노를 터뜨리며 크게 항의를 했었다. 그리고 8·15 광복후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 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그것이 북침이라고 우겼었다. 북한이 그럴 때마다 남한에서는 그것을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곤욕을 치르곤 했었다.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있었던 양민집단대학살은 분명히 우리 국군이 저지르고 그것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왜곡시켜 사후처리했던 것이 미국동군사령부 비밀문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이 되었는데도 여지껏 계속해서 침묵만 지키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인, 학자들, 종교인, 법조인들을 비롯한 모든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대중의 양심들이 심히 의심스럽고 가증스럽기만 하다. 일본과 북한에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곡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들이여 정직하게 답변을 하라.

지금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들떠 있다. 그런데 우리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자유족」들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신원을 해주지 않아서 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한채 50년 한을 가슴에

안고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 통한 50년! 아. 슬픔과 분노와 고독과 절망의 50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는 도대체 뭐야? 대한민국 헌법은 도대체 뭐야? 우리 정부는 우리 국회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뭐야? 우리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일진데 이게 도대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의 집권자들이여! 그대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대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면 제발 제발 조속히 아무런 죄없이 국군들에게 집단학살당한 석달동 주민들의 50년의 통환을 풀어주기 바란다. 지구촌에 정의가 살아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 만약 우리들의 신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대들도 누구들처럼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양민학살 해결없이는 국민정부도 될 수 없고 새 천년에 부푼 청사진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전 정권들에게 미리 예언하고 경고했던 것처럼 나는 국민정부에도 미리 예언하고 경고한다.

※ 첨부

- #1. 미군사 고문단 정보일지(1차 입수 미국 정부비밀문건)
- #2. 미국동군 사령부 정보처 매일 정보요약(2차 입수 미국 정부비밀문건)
- #3. 미국동군 사령부 군무국장 전문(3차 입수 미국 정부비밀문건)

美軍事顧問團情報日誌

G-2 PERIODIC REPORT

From: 290001 December 1949  
To : 300001 December 1949

Headquarters, K.A.G  
Seoul, Korea  
30 December 1949

No. 236.

MAPS: Korea: 1/250,000,  
East Asia: 1/1,000,000.

1. ARMED FORCES:

a. Army:

(1) Border Incidents:

(a) First Division:

1. Hill Sue,ull Incident:

a. 181630 December 1949, South Korean Army troops on Hill 112 (907-1090) fired 10 rounds of 60mm mortar, 20 rounds of 3AR, 15 rounds of M-1 rifles at North Korean Security troops located on Hill Sue,ull (907-1090) who were broadcasting propaganda over their loud speaker system. Two (2) of the enemy are reported killed in this action. (C-3)

(b) Capital Division:

1. Un Pa San Incident:

a. 211315 - 211320 December 1949,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n troops located on Center Hill, Un Pa San (053-1090.5) area fired a total of 6 mortar rounds and a number of small arms fire at South Korean Forces on Dol Hill (040.9-1096.8). No casualties reported. (C-3)

b. 251010 - 252201 December 1949,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n troops located on Center Hill, Hill "B", Hill 2 & 3, Un Pa San (053-1090.5) fired 10 rounds of mortar, 40 rounds of LMG and a number of small arms fire at South Korean Forces on Nok Dal San (040.9-1090.0), Un Pa San Hill and Dol Hill (040.9-1090.0). No casualties or damages reported. (C-3)

2. Bi Sok Hill Incident:

a. 241510 - 250720 December 1949,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n troops located on Bi Sok Hill, Kuk Sa Son. (044.4-1090.3), Hill "B" and Kong Do. Don San fired over 30 rounds of LMG, and an unknown number of 82mm mortar rounds at South Korean Army troops located at Eyo Rak Hill, Kachi Sañ (057-1090), Bi Rak Hill, Hill 8, Jul Tan Hill and Un Pa San Hill. Two (2) South Korean soldiers were wounded on Un Pa San Hill. (C-3)

Basic: G-2, Periodic Report, Number 230, dated 30 December 1949, Page 2.

(2) Interior of South Korea:

(a) Second Division:

1. Taka Ri Incident:

a. 241300 December 1949, elements of the National Police killed 3 guerrillas at Taka Ri (1110-1560), Taksan Myon, Kaechon Gun. (C-3)

2. Munsu Dong Incident:

a. 251700 December 1949, elements of the National Police engaged 30 guerrillas at Munsu Dong (1120-1560), Taksan Myon, Chaechol Gun.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action:

'1' Friendly Losses:

'a' Native.

'2' Guerrilla Losses:

'a' KIA: 5

'b' POW: 1

'c' Rifles (wooden): 5

'd' Hand grenade: 3 (C-3)

3. Chi yang Incident:

a. 280530 December 1949, elements of the 2nd and 3rd Companies, 10th Regiment engaged 50 guerrillas at the hill rear of Chi yang (1170-1552), village, Tosan Myon, Andong Gun.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action:

'1' Friendly Losses:

'a' KIA: 1

'b' MIA: 2

'2' Guerrilla Losses:

'a' KIA: 8 (C-3)

4. Hak a San Incident:

a. 270750 December 1949, after receiving a report that 1 armed and 3 unarmed guerrillas appeared in Hak a San (1157-1537), Woljon Ri, Bukhu Myon, Andong Gun; 20 men of the National Police moved out to the village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Basic: G-2, Periodic Report, Number 230, dated 30 December 1949, Page 3.

'1' Guerrilla Losses:

'a' POW: 1

'b' Carbine: 1

'c' Ammunition: 4 rounds

'd' Documents (C-3)

5. Sok Pal ki Incident:

a. 241400 December 1949, approximately 70 guerrillas invaded Sok Pal ki (1110-1542), Sokdin Ri, San Puk Myon and inflicted the following damages before escaping:

'1' Friendly Losses: (civilians)

'a' KIA: 43 (men)  
43 (women)

'b' MIA: 14 (men)

'c' Houses destroyed by fire: 24 (C-4)

6. Il Wol San Incident:

a. 20 December 1949, a platoon of H Company, 10th Regiment engaged an unknown number of guerrillas in the vicinity of Il Wol San (1205-1553).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action:

'1' Friendly Losses:

美軍事顧問團情報日誌

1949년 12월 30일 정보일지 제238호

5. 석달리 사건

a. 1949년 12월 24일 14시에 게릴라 70명이 산북면 석달리를 습격하여 도망치기 전에 다음의 피해를 입혔다.

(1) 우리측 피해(주민)

(a) 사망 남자 : 43명

여자 : 43명

(b) 부상 14명

(c) 방화로 인한 가옥손실 : 24호 (C-4)



#2 미국동군사령부정보처매일정보요약

Copy No. 1  
Commander in Chie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3

# INTELLIGENCE SUMMARY



INTELLIGENCE DATA  
COVERING THE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IN:  
JAPAN  
KOREA  
PHILIPPINES  
CHINA-MANCHURIA  
SOUTHEAST ASIA  
N. E. I.

DECLASSIFIED PER *JCS-1000*  
*20 Aug 75*

~~SECRET~~

SEE SECURITY REGULATIONS ON INSIDE COVER

Military, Political, Economic, Social Situation,  
Press Review, Civil Intelligence, Miscellaneous  
Selected Items for the Information of Commanders  
and Staffs of the Far East Command

No. 2686

## MILITARY SITUATION

### 1. Guerrilla Activity in South Korea: (Last of series)(Refer to Map No. 3)

Comment: The following is the last of a series of articles on guerrilla activity in South Korea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y U.S. officials during the period 12-19 Dec 49. The previous articles (Intell. Summary 2681, 2682) explained the composition of guerrilla forces in South Korea, discussed the means of disseminating guerrilla propaganda, and elucidated upon the disposition, tactics, armament, and morale of the guerrilla forces. An over-all evaluation of B-2 is given to this report by the submitting agency.

a. Avenues of Entry: The guerrillas' main route of entry into South Korea is across the mountain ranges that extend the width of the peninsula. However, the Kangwon Province area along the eastern sea coast is most commonly utilized to cross into South Korea. The guerrillas then make their way south into rendezvous areas or scatter throughout the mainland. Because of the cold weather, it is expected that the guerrillas will attempt to exploit the water route to a greater extent to gain entry into South Korea. This route is not popular with the guerrillas in that they consider it risky, since they are in full view of South Korean land and sea forces for a considerable time while en route to the landing areas. When the water route is used, the guerrillas' main port of entry is at Pohangdong. This port-city long has been used by them as a rendezvous point. The Korean Army and National Police have failed in at least three attempts to eliminate guerrillas from the city. Events in the past have proved that the inhabitants are sympathetic toward the guerrillas and desire their trade. Pohangdong is centrally located in an area that provides the guerrillas with many jumping-off spots into the interior of South Korea, or to North Korea if they wish to return to the Communist regime for training or supplies. The long coast line of South Korea affords the guerrillas with entrances into the country at almost any point of their choosing. Recently guerrillas in groups of 3-10 have been entering South Korea by way of the western coast, which heretofore has not been utilized to any great extent. Although the landings have been made by small groups, this route may be exploited further in the future. Most of the landings on the western coast have been made from small fishing boats, or from other small boats that are engaged in smuggling goods to North Korea and smuggling guerrillas on their return trip to South Korea. This technique is facilitated by the North Korean practice of issuing passes that authoriz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lthough South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passes, members of the South Korean Navy are apt to allow the boats to enter South Korean waters in return for money offered by the traders. (a)

b. Civilians Massacred: Korean Army soldiers massacred 98 South Korean men, women, and children on 24 Dec 49 in the remote mountain village of Soktal, North Kyongsang Province. The incident occurred when elements of the 25th Regiment (on a reconnaissance patrol through the Soktal area) surrounded the village, assembled the inhabitants, and accused them of aiding Communists. Although the villagers denied the accusation, the soldiers opened fire on them with carbines, rifles, hand grenades, and bazookas. A total of three infants, nine schoolboys, 43 men, and 43 women were killed without the slightest provocation. Rifle fire was used to kill those found to be only wounded. Five wounded men and seven wounded women who escaped the coup de grace by lying under dead bodies are now hospitalized. Twenty-three of the 27 homes in the village were burned by the soldiers.

Korean Army 2d Lt YU Chin Kyu and two sergeants have been named as among 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YU reported the incident to his company commander, who, in collusion with a local police captain, falsely reported the massacre to higher officials as being perpetrated by 70 guerrillas so as to take the blame off the Army. (b)

Source Comment: Although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villagers formerly aided Communists in the area, more recently they had assisted the police. Without a doubt, the instigators of the incident will be tried and executed. (b)

(a) Special Report: General Survey of Guerrilla Activity in South Korea, 19 Dec 49  
(b) USMILAT, Seoul, 42169, 11 Jan 50

미국동군 사령부  
정보처 매일 일일 정보 요약  
(1945~1950)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정세, 언론비평, 시민공보, 등 다방면에 걸친 정보

극동사령부의 사령관과 참모들의  
정보를 위한 정선된 항목

문서번호: No. 2686(1950. 1. 16)

군사동향

1. 남한에서의 게릴라 활동(전면에서 계속) (3번지도 참조)

논평 : (내용생략)

a. 침투로 (내용생략)

b. 민간인 대학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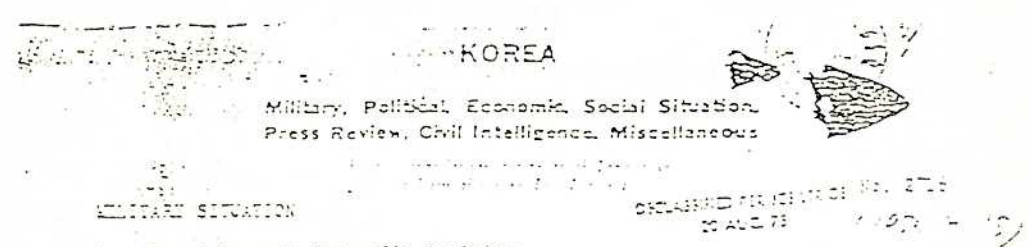
한국군인들이 1949년 12월 24일에 경상북도 산간오지 석달마을에서 남한인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98명을 학살했다. 그 사건은 제 25연대소속 부대가(석달지역 순찰 중에) 마을을 포위하고 주민을 한곳에 집합시켜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어서 일을 저질렀다. 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이 뒤집어 씌운 누명을 부인 했었지만 군인들은 카빈, 소총, 수류탄 휴대용대전차 발사포트 마을 주민들을 향해 발포하였다. 유아 3명, 초등학생 9명, 남자 43명, 그리고 여자 43명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었다. 소총은 부상만 당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었다. 부상당했으나 시신밑에 깔렸기에 확인사살을 면한 남자 5명, 여자 7명(중상)은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다. 27호중 23호의 가옥이 군인들에 의하여 소실되었다.

그 사건의 책임자로 한국군 2사단소속의 유진규 소위와 2명의 하사관이 거명되고 있다. 유소위는 사건을 지휘관에게 보고했고 지휘관은 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서장과 결탁해서 고위층 관리들에게는 70명의 게릴라들이 학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허위 보고 했었다.

정보출처 분석 :

마을 주민들이 전에 인근지역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준 것 같으나 최근에는 경찰에 협조 했었다. 사건책임자는 당연히 기소 및 처형 될 것이다.

(이하 내용 생략)



MILITARY SITUATION

1. Armed Forces: Guerrilla Activities:

a. Guerrilla Incidents Decrease: Guerrilla activity in South Korea decreased during the period 3-10 Feb, when only 15 guerrilla attacks on villages and police boxes were reported; all except three were of a minor nature. On 4 Feb, 40 armed and 10 unarmed guerrillas burned 50 homes in a small village in North Kyongsang Province and killed 13 of its inhabitants. Approximately 70 guerrillas burned 10 homes and killed six civilians in another small village in the province on 6 Feb, while 42 homes were burned and 11 civilians were killed in a similar incident on 7 Feb. (a)

Eighteen operations against guerrilla forces by the Korean Army and the National Police were reported during the period; all except three were of a minor nature. Twelve soldiers and 31 guerrillas were killed, 1 Feb, when elements of the 16th Regiment engaged approximately 75 armed guerrillas in a fire fight in North Kyongsang Province. Four guerrillas were captured during the operation. On 3 Feb, two guerrillas were killed when elements of the 15th Regiment attacked a guerrilla hide out in South Cholla Province. Six hand grenades and a small quantity of ammunition was confiscated from the guerrillas. Thirteen guerrillas were killed and five rifles were confiscated, 4 Feb, when elements of the 20th Regiment engaged approximately 27 guerrillas in a fire fight in a small village in South Cholla Province. Reports state that a total of 25 M-1 rifles, four carbines, one light machine gun, one Browning automatic rifle, four Japanese rifles, one pistol, and 10 hand grenades were captured from guerrilla forces, while 12 soldiers, 30 civilians, and 58 guerrillas were killed in incidents reported during the period. (a)

2. Civil Disturbances 16-31 Dec 49:

a. Armed Forces Aggressive: Of the 76 incidents involving deaths reported during the period 16-31 Dec 49, the Korean Army and National Police took the initiative in 74, while guerrilla forces instigated only two. Aggressive action by Government forces resulted in the death of 578 guerrillas, according to recapitulation of incid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period, while 10 soldiers, five policemen, and 102 civilians also were killed. The number of guerrilla casualties increased greatly over that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of Nov 49, when 445 guerrillas were killed (Intell. Summary 2666). The larg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is due to the Sokhal massacres of 24 Dec, when soldiers of the 25th Regiment indiscriminately killed 98 civilians (Intell. Summary 2666). Although a majority of the incidents again took place in the southwestern sector of the mainland, a gradual shift in guerrilla activity toward North Kyongsang Province and along the eastern sea coast is apparent. No serious incident was reported for Cheju Island. A summary of incidents involving deaths, reported for the period, is given below. (b)

b. Recapitulation of Incidents: (Refer to Map No. 2)

- 1 - Toka: Elements of the National Police killed three guerrillas 20 Dec. (1)
- 2 - Sokhal: Elements of the 25th Regiment massacred 98 men, women and children of Sokhal, 24 Dec, after accusing them of aiding Communists. (2)
- 3 - Kumsu: Five guerrillas were killed by elements of the National Police 25 Dec. (c)
- 4 - Chikwang: One soldier and eight guerrillas were killed, 28 Dec, when elements of the 16th Regiment engaged 50 guerrillas in a fire fight. (a)
- 5 - Kumsu: Elements of the 2d Division killed two guerrillas 27 Dec. (c)
- 6 - Sokhal: Six guerrillas were killed by elements of the 16th Regiment 28 Dec. (c)

- (a) USMILAT Seoul 53323, 11 Feb 50
- (b) C-2 Command
- (c) RMAC C-2 P/S 218, 30 Dec 49
- (d) USMILAT Seoul 22169, 11 Jan 50
- (e) RMAC C-2 P/S 218, 3 Jan 50
- (f) RMAC C-2 P/S 218, 4 Jan 50

문서번호. 2716 (1950. 2. 15)

군사동향

1. 군대, 게릴라 활동 :

(내용생략)

2. 주민침해 49년 12월 16 ~ 31일 :

a. 군대공세 :

49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보고된 살인을 포함한 76회의 사건중 게릴라들은 단 2회 유발하는 동안 군대와 경찰은 74회를 선제공격했다. 정부군에 의한 공격행위는 576명의 게릴라를 사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기간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에 의하면 10명의 군인과 5명의 경찰과 그리고 102명의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게릴라들의 사망자 수는 49년 11월 한달기간에 445명이 사망한 수를 상응할 만큼 크게 증가했다.

(정보요약 2666) 민간인 사망자 수가 대규모인 것은 바로 25연대 장병들이 민간인 98명을 두차별 사살한 석달 대학살이었다. (정보요약 2686) 대부분의 사건은 본토의 남서에 있는 작전 지구에서 다시 일어났었지만 게릴라 활동은 경상북도 쪽으로 그리고 동해 해변을 따라서 점차적인 이동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주도에서 보고 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보고된 살인을 수반한 사건의 요약은 아래에 열거한다.

b. 사건의 개괄 : (2번 지도 참조)

- 1. - 다가 : 경찰대가 12월 24일 게릴라 3명을 사살했다. (a)
  - 2. - 석달 : 12월 24일 25연대 장병들이 석달리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도왔다는 죄를 뒤집어 씌운 후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98명을 대학살했다. (d)
  - 3. - 문수 : 게릴라 5명이 12월 25일 경찰대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c)
- (이하 내용생략)

KOREA

Military, Political, Economic, Social Situation, Press Review, Civil Intelligence, Miscellaneous

Selected Items for the Information of Commanders and Staffs of the Far East Command

No. 2694

MILITARY SITUATION

1. Recent Developments:

a. Guerrilla, Armed Forces' Activity: Korean Army Headquarters reports that 206 guerrillas were killed and 63 captured during the period 13-20 Jan 50. (a) Twenty-one operations against guerrilla forces by the Korean Army and National Police were reported during the period, while the guerrillas increased their activity slightly by launching 35 attacks on villages and police boxes. All except two of the attacks made by Government forces were of a minor nature. On 13 Jan, elements of the 19th Regiment killed two guerrillas in the Chiri Mountain area of South Kyongsang Province. Elements of the 25th Regiment killed 25 guerrillas, 15 Jan, when approximately 100 guerrillas were engaged in a fire fight in North Kyongsang Province. A delayed report states that nine soldiers and 71 guerrillas were killed, 9 Jan, when elements of the 25th Regiment engaged approximately 160 guerrillas in North Kyongsang Province.

All except one of the guerrilla attacks were of a minor nature. On 16 Jan, 17 civilians were killed and 18 homes were destroyed by fire when approximately 100 guerrillas attacked and burned a small village in North Kyongsang Province. Government forces captured nine M-1 rifles, 11 carbines, 21 hand grenades, 13 Japanese rifles, two Browning automatic rifles, and one light machine gun from guerrillas in incidents reported during the period. (b)

b. Changes in Commands Made: Korean Army Headquarters has announced the following changes in major commands in the Korean Army: Brig Gen YU Jai Hung has been relieved as Commanding General, 6th Division, and assigned as Commanding General, 2d Division; Col KIM Paik was relieved as Commanding Officer, Chiri Task Force, and assigned as Commanding General of the 3d Division; Col SHIN Song Chul was relieved from Headquarters, Korean Army, and assigned as Commanding General of the 6th Division; Col HAM Chun Ho was relieved as Commanding Officer, 3d Regiment, and assigned as Commanding Officer, Chiri Task Force; and Lt Col KANG Do Kran replaced Lt Col YU Hmi Jun as Commanding Officer of the 25th Regiment. (c)

Source Comment: Maj Gen LEE Ung Jun, former Commanding General, 3d Division, and Brig Gen SOHNG Ho Sung, former Commanding General, 2d Division, were relieved because of: (1) the dissatisfaction with their performance as commanders; (2) the desire to bring younger men into command positions; and (3) the fact that both are held indirectly responsible for the Soktal massacre in which 90 civilians were killed by soldiers on 24 Dec 49 (Intell. Summary 2636). Both generals have been assigned to Korean Army Headquarters for probable reassignment to a school command. The relief of Lt Col YU is a direct result of the Soktal massacre, which was perpetrated by members of his command. Col YU has been reassigned to the Infantry School. (c)

c. Installations Visited: SHIN Sung H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Maj Gen SHIN Tai Mong, Acting Chief of Staff, visited military installations in the 25th Regimental area in Andong during the period 13-20 Jan. It is believed that Minister SHIN also is investigating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oktal massacre. (b)

Source Comment: The Army desires to keep the story of the massacre from the public in the interest of good relations. Thus far, the newspapers have not published the story. (b)

d. Airplane Crashes: A Korean Air Force L-5-type aircraft crashed in North Cholla Province, 30 Dec 49, suffering major damage. The accident is being investigated, although it is believed that engine failure caused the crash. The loss of this plane leaves the Air Force with only 13 L-type aircraft. (d,e)

Source Comment: The plane encountered no trouble during a test flight made just prior to its take-off on a mission to observe guerrilla activity in the Chiri Mountain area. (c)

- (a) KMAC Seoul, 45052, 21 Jan 50
- (b) USHILAT Seoul, 45071, 21 Jan 50
- (c) USHILAT Seoul, 44934, 12 Jan 50
- (d) USHILAT Seoul, 43709, 15 Jan 50
- (e) KMAC G-2 P/R 222, 9 Jan 50



DECLASSIFIED BY 753 JCS 112 ON 12 AUG 73

문서번호: No 2694 (1950. 1. 24)

군사동향

1. 최근 진척 상황

- a. 게릴라, 군대활동(내용 생략)
- b. 지휘관 인사이동 :

한국 육군본부는 한국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이동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유재홍 준장을 6사단장에서 2사단장으로 전보시키고, 지리산 토벌대장 김백일 대령을 3사단장으로, 신송철 대령을 육군본부에서 6사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3연대장이던 한준호 대령은 지리산 토벌대장으로 전임시켰으며, 강도현 중령을 25연대 연대장이던 유희준 중령의 후임으로 발령했다.

정보출처 분석 :

3사단 전임사단장 이용준 소장과 2사단 전임사단장 송호성 준장은 다음의 사유로 해임되었다. (1) 지휘관으로서 능력에 대한 불만 (2) 지휘관의 연령을 낮추려는 의도 (3) 2명 모두 1949년 12월 24일 98명의 양민을 학살한 석달대학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정보요약. 2686). 두장성은 재발령 하기 위한 조치로 육군본부에 예속되었다. 유중령해임은 석달대학살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석달대학살은 그의 휘하부하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유중령은 보병학교에 배속되었다.

c. 군사시설 방문 :

국방부장관 신성모와 부참모장인 신태홍 소장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안동에 주둔한 25연대 지역내의 군사시설을 시찰했다. 신장관은 또한 석달대학살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

정보출처 분석 :

군은 관계유지를 위해서 대학살의 전말을 일반국민들로부터 숨기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BAT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미국동군사령부군무국장전문

INCOMING MESSAGE



CLASSIFIED PER JCS LTR OE  
 20 AUG. 75

*Secret*  
 ROUTINE

ELT/jrb

11 Jan 50

*Handwritten signature/initials*

FROM : USMILAT SEOUL KOREA  
 TO : DA (INT DIV) WASH DC, CINCPAC (G-2) TOKYO JAPAN  
 NR : ARMA 10

Following is report of incident obtained as result police investigation: 241400. 2 platoons 7th Co 3d Bn 25th Rgt on reconnaissance through area entered Sok Tal Ni (118-1542) in remote mountainous area. Trps surrounded village assembled all inhabitants and accused them of aiding Communists which villagers denied. Trps then without provocation opened fire civilians with carbines, rifles, grenades and bazooka. Those found only wounded were killed by rifle fire. Total killed by trps 3 infants, 9 schoolboys, 43 men and 43 women. Five wounded men and 7 wounded women who escaped occp de grace by lying under bodies of dead now hospitalized. 23 of 27 houses in village were bur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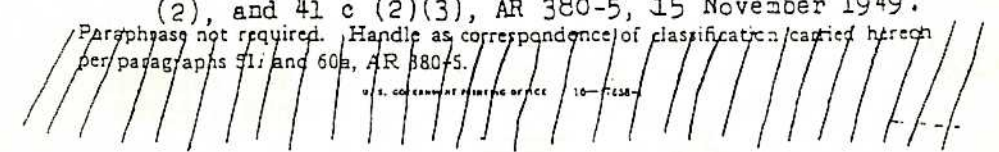
Korean Army pers named as responsible are 2d Lt Yu Chin Kyu and 2 sgts. Yu reported incident to Co Comdr who in collusion with police Capt in Monkyon falsely rptd massacre perpetrated by 70 guerrillas to take onus off Army. Indications are that villagers had formerly aided Communists known to be in vicinity but had more recently been disabused and had asstd police. Police investigations has been secret and they have not

(over)  
 42169 ROUTINE

*Secret*

Paraphrase not required. Handle as correspondence of classification carried hereon per paragraphs 17 a (1) (2), and 41 c (2)(3), AR 380-5, 15 November 1949.

Paraphrase not required. Handle as correspondence of classification carried hereon per paragraphs 51i and 60b, AR 380-5.



ARMA 12 River

1951

*Secret*

ROUTINE

FROM : USMILAT SEOUL NR : ARMA 10 11 JAN 50 CONT'D

notified Army of results apparently so not to roll waters, however, understood info quietly given to 8 members Legislature. Army now aware of incident and has sent own investigators to area. If massacre becomes publicized it could well do great damage to Army efforts to build public good will. Without doubt perpetrators will be tried and executed.

NO SIG

DECLASSIFIED PER JCS LTR OA 20 AUG 25



ACTION : a-2

INFORMATION : COMMANDER IN CHIEF, CHIEF OF STAFF, AG, DIPLOMATIC

42169

ROUTINE

TOC : 100710 Z  
MCN : 55785

*Secret*

【첨부1】

문서제목 : <주한미 육군무관이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1950년 1월 11일자, ARMA 10호 전문>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보고)

문서출처 :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시 소재 맥아더문서관(MacArthur Archives)

문서번역 : 이하.

극동군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Far Eastern Command)  
부관감실(Adjutant General's Office)  
전문 및 전보센터(Radio and Cable Center)  
수신전문

2급비밀(Secret)

평상

1950. 1. 11.

발신 : 한국 서울주재 미육군무관

수신 : 워싱턴 디씨 육군부(정보국), 일본 동경 극동군사령관(정보참모부장)

문서번호 : ARMA 10

이하는 경찰 수사결과 획득된 사건 보고서이다. 24일 14:00시 25연대 3대대 7중대의 2개 소대는 정찰중 궁벽한 산악지역인 석달리(좌표 118-1542)에 들어갔다. 군대는 마을을 포위하고 모든 주민들을 집결하게 한 후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부역했다고 추궁했는데, 마을주민들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군대는 도발 당하지도 않았는데, 사격을 개시하여, 카빈총, 소총, 수류탄, 바츨카포 등으로 민간인을 쏘았다. 부상만을 입은 것으로 판명된 주민들은 소총 사격으로 살해했다. 군대가 살해한 총인원은 유아 3명, 국민학생 9명, 남자 43명, 여자 43명이었다. 죽은 사체 밑에 누워서 최후의 일격을 피했던 부상당한 남자 5명과 여자 7명은 현재 일원 가로중이다. 27가구 중 23호가 불탔다.

책임자로 거명된 한국군의 이름은 유진규소위와 2명의 하사들이다. 유소위는 사건을 중대장에게 보고했으며, 중대장은 문경 경찰서장과 공모해 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게릴라 70명이 학살을 저질렀다고 허위 보고했다. 정황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은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준 것으로 인근에 알려졌지만, 보다 최근에는 미몽에서 깨어나 경찰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했으며, 파문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수사결과를 육군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국회의원 8명에서 은밀히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육군은 사건을 인지했으며 현지에 독자 조사반을 파견했다. 만약 학살이 공표된다면, 국민적 호의를 창출하려는 군의 노력은 큰 손상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가해자들은 기소되어 처형될 것이다.

서명 없음.

[1975년 8월 20일자 합동참모본부 서한에 의해 비밀해제됨.]

실행 : 정보참모부

통보 : 사령관, 참모장, 부관참모, 대사관.

RECORDED BY [unclear] / [unclear]  
By [unclear] INPA Date 7/4/89

File 370.64

The following report was received on 25 December from the 25th Regiment, 3rd Division, Korean Army:

"Approximately seventy (70) guerrillas invaded Sok Tal village (1118-1542). The guerrillas burned twenty-four (24) houses and killed eighty-six (86) villagers; forty-three (43) males and forty-three (43) females. Fourteen (14) of the villagers were wounded."

NOTE: There was a total of twenty-seven (27) houses in the village. The total population of the village was one hundred thirty-nine (139); seventy-seven (77) males and sixty-two (62) females. Practically speaking, the whole village was wiped out. This report indicated a new trend in guerrilla tactics therefore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American advisors. Briefly, the facts brought to light by the investigation appear below.

The people of this village were suspected by the Army of giving aid and comfort to the guerrillas, although they had actually aided police and army operations on two occasions. At 231600 December 1949, the 2nd and 3rd platoons, 7th Company, 3rd Battalion, 25th Regiment, 3rd Division left Jomchon ( ) and Yechon (1142-1534) respectively. Their orders were to move out from their stations and join forces at 241000 December 1949 at Sangson-am Dong. The combined force was then to conduct reconnaissance through Sokpong San ( ), Talbi San ( ).

Authenticity: 11/12/2005  
 By: WAPA Date: 3/4/08

and Tansan ( ) arriving at Kalpyong Mi ( ), at 3)0.44  
 241800 December. Sak Tal Ni was on their route of reconnaissance.

The two platoons made contact at the appointed time and moved out to Sok Tal Village arriving there at 241400 December 1949. They surrounded the village and assembled all those present (approximately one hundred). The army then accused the villagers of being communists. The villagers denied the charge and the two platoons, without further ado, opened fire with bazookas, handgrenades, rifles, and carbines. No defense was made by the villagers who were without arms. No provocation for this attack is evident. The Korean Army checked the villagers for wounded, those wounded were then killed by rifle fire. The total bag for these two platoons in this atrocity was one hundred (100) defenseless villagers; nine (9) school-boys, forty-three (43) woman, three (3) infants, forty-three (43) men, five (5) wounded man and seven (7) wounded woman escaped the coup de grace by lying inert under the dead bodies of their neighbors, The names of the KA personnel directly responsible for this atrocity are:

- |                     |                                                            |
|---------------------|------------------------------------------------------------|
| 2nd Lt Yu Chin Kyu  | 3rd Platoon, 7th Company,<br>3rd Battalion, 25th Regiment. |
| S/Sgt Kim, Jom Dong | 3rd Platoon, 7th Company,<br>3rd Battalion, 25th Regiment. |
| Sgt An Taek Myo     | 2nd Platoon, 7th Company,<br>3rd Battalion, 25th Regiment. |

Apparently, the commander of the 7th Company, Capt Lyoo Eung Chol and the Munkyong Police Chief, Police Capt. Lee Ui Song knew nothing of the incident until after it had been accomplished. The KA Captain prevailed upon the police captain to send a false report to his headquarters. The KA Captain then sent a false report to his own CO.

[첨부2]

문서제목 : <한국군 제3사단 25연대의 1949년 12월 25일자 보고에 대한 주한미임시군사 고문단의 조사보고서>[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준장의 비망록]

문서출처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Record Group 338, Entry 11007, Box 69, 주한미군사고문단(KMAC) 로버츠준장개인서한철(Brig General W. L. Roberts (Personnal Correspondence))의 379.64 file(Guerrilla Warfare)

문서번역 : 이하.

이하의 보고서는 12월 25일 한국군 3사단, 25연대로부터 접수한 것이다.

"대략 70명의 게릴라들이 석달마을(좌표 1118-1542)을 습격했다. 게릴라들은 가옥 24호를 태우고 마을 주민 86명을 살해했다. 남자 43명과 여자 43명이다. 마을 주민 14명은 부상당했다."

주 : 마을에는 총 27호의 가옥이 있었다. 마을의 총주민수는 139명이었다. 남자는 77명, 여자는 62명이었다. 실질적으로, 온마을이 전멸되었다. 이 보고서는 게릴라전술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을 표시하는 것이었기에 미 고문관은 조사를 실시했다. 간단히 말해, 조사에 의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군에 의해 게릴라들에게 편의와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두 번이나 경찰과 군의 작전에 조력했다. 1949년 12월 23일 16:00시에, 3사단 25연대 3대대 7중대의 2소대와 3소대가 각각 점촌과 여천(좌표 1142-1534)을 출발했다. 이들이 받은 명령은, 현 주둔지에서 이동해 1949년 12월 24일 10:00시에 상선암동에서 부대를 합류하라는 것이었다. 연합부대는 이후 석봉산, 달비산, 단산에 대한 정찰활동을 수행했고, 12월 24일 18:00시 갈평리에 도착했다. 석달리는 정찰 경트 가운데 위치했다.

2개 소대는 지정된 시각에 합류했고, 석달마을로 이동해 1949년 12월 24일 14:00시에 현지에 도착했다. 이들은 마을을 포위하고 모든 거주민(약 1백명)을 집합시켰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마을 주민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추궁했다. 마을주민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2개 소대는

더 이상의 별 확인조치 없이 바추카포, 수류탄, 소총, 카빈총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어떤 무기도 갖고있지 않았던 마을주민들은 아무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 공격에는 어떤 도발도 없었음이 분명하다. 한국군은 부상당한 마을주민들을 점검했고, 부상자들은 그후 소총사격으로 살해되었다. 이 잔학행위에서 이들 2개 소대가 사냥한 총계는 무방비상태의 마을주민 1백명이었다: 학생 9명, 여자 43명, 유아 3명, 남자 43명, 부상남자 5명과 부상여자 7명은 이웃주민들의 시체 밑에서 죽은 듯 엎드림으로써 최후의 일격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잔학행위에 직접 책임있는 한국군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유진규소위 : 25연대 3대대 7중대 3소대
- 김점동하사 : 25연대 3대대 7중대 3소대
- 안택효중사 : 25연대 3대대 7중대 2소대

7중대장 류용철대위와 문경경찰서장 이의성경감은 이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못했음이 분명하다. 한국군대위는 경감이 본부에 허위보고를 하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군대위는 자기상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

Authenticity WWD 795005  
By W. W. W. W. Date 7/4/89

*File*

REPORT MADE BY: Captain FAIK, Han Chong, Security Section, HQ, Nat'l. Police  
Lieut. LEE, Ku Ruk " " " " 370.64

- 2. PLACE: SUK TAL Village, SUK BONG NI, SAN FUK Myon, MUN GYONG Gun, Kyongsang Pukto
- 3. INVOLVED: South Korean Army from YE CHON and CHOM CHON, 2d & 3d Platoons, 7 Co 2 Bn 25th Regt 3d Division.
- 4. DETAILS: There were twenty-three (23) houses in this village, and 139 people plus five visitors (1 male four females) total 144 persons, 75 male and 69 female. The Commander of the 7th Company is Captain RYOO, Eung Chul, age 28, 1st platoon of Company is stationed at MUN GYONG, 2d Platoon stationed at CHOM CHON and 3d Platoon is stationed at YE CHON. The 2d & 3d Platoon attacked SUK TAL village. 2d Platoon leader was Sgt. AHN, Taek Myo, Aged 28, with 32 soldiers in his platoon and 3d Platoon leader was 2d Lt. YOO, Chin Kyoo, aged 23, with 35 soldiers in his platoon. Total strength of attacking force 69 officers and men, attacking with M-1. grenade launchers and hand grenades and bayonets.

The attack took place from 1300 to 1400 24 December 1949. The reason for attacking the village, according to police report is as follows: The village is located in a mountainous area and guerillas used to come to the village. People in the village were co-operating with the guerillas by giving them food, clothing and passing on information concerning SKA and SKNP to the guerillas. These people never surrendered to friendly forces during the "arrest week".

During the attack, 23 houses and all furniture there in were burnt, 45 male and 43 female civilians out of 144 were killed and 5 male and 7 female civilians were wounded.

A SKNP detective private WHANG, Yung Hoon, from intelligence section, MUN GYON Police Station was with the CO 7th Company and heard the Platoon leader reporting to the CO that the SKA attacked the village in question and stated that the CO got very angry with the Platoon leader.

The detective reported to the Chief of Police of Mun Gyong and the following day SKNP went to the place and took pictures and buried the dead temporarily. There were three women and two children still alive. SKNP took the wounded persons to th Kim Chon Provincial Hospital and the Chom Chon hospital.

The Company CO said that he did not order the attack on the village but on 23 December had ordered the two platoons to search TAN SAN, SUK BONG SAN and DUK BI SAN and return to KAL FYONG between 1700 and 1800 on the 24 December.

EVIDENCE: Statements from two civilians who lead the SKA to the place, from two of the wounded persons and from Detective WHANG

	LIST OF DEAD								
	UNDER 5	UNDER 10	UNDER 15	UNDER 20	30	OVER 30	OVER 51	UNK	TOTAL
MALE	7	2	2	9	5	5	10	0	47
FEMALE	2	2	8	2	8	10	6	5	47
TOTAL	9	4	10	11	13	15	16	5	94



【첨부3】

문서제목 : <국립경찰국 보안과 백한중경감과 이구락경위의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학살사건에 관한 보고서> (일자미상)

문서출처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Record Group 338, Entry 11007, Box 69, 주한미군사고문단(KMAC) 로버츠준장개인서한철[Brig General W. L. Roberts (Personnal Correspondence)]의 379.64 file(Guerrilla Warfare)

문서번역 : 이하.

1. 보고서 작성 : 국립경찰국 보안과 백한중경감, 동 이구락경위

2. 장소 :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3. 관련부대 : 여천과 점촌에서 온 3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의 남한군

4. 세부사항 : 이 마을에는 23호의 가구가 있었으며, 주민 139명에 방문객 5명(남자 1, 여자 4)을 더해 모두 144명이 있었으며 남자 75명, 여자 69명이었다. 7중대장은 28세의 류웅철대위이다. 중대의 제1소대는 문경에 주둔하고 있으며, 2소대는 점촌에, 3소대는 여천에 진주하고 있다. 제2소대와 3소대가 석달마을을 공격했다. 2소대의 지휘관은 28세의 안택호중사이며 그의 소대에는 32명의 병사가 있었다. 3소대 지휘관은 23세의 유진규소위트 그의 소대에는 35명의 병사가 있었다. 공격군의 총병력수는 장교와 사병을 포함해 69명이었으며, M-1, 유탄발사기, 수류탄, 총검으로 공격했다.

공격은 1949년 12월 13:00부터 14:00시까지 이루어졌다. 경찰보고에 따르면 마을을 공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을은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게릴라들이 마을에 출몰하곤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음식, 의복을 제공하며, 남한군경에 관한 정보를 게릴라에게 건네줌으로써 게릴라들에게 협력했었다. 이들은 “赦免期間” 동안 남한군경에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공격의 와중에서, 23채의 가옥과 내부의 모든 가구가 불탔으며, 144명중 민간인 남자 43명과 여자 43명이 살해되었으며, 민간인 남자 5명과 여자 7명이 부상당했다.

문경경찰서 정보과에서 파견된 형사 황영훈은 7중대장과 함께 있었는데, 소대지휘관이 중대장에게 수상한 마을을 공격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으며, 중대장이 소대지휘관에게 매우 화를 냈다고 말했다.

형사는 문경경찰서장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남한 국립경찰은 현지로 나가 사진을 찍고 시체를 가매장했다. 그때까지 여자 3명과 아동 2명이 생존해있었다. 남한 국립경찰은 부상자들을 김천도립병원과 점촌병원으로 후송했다.

중대장은 자신이 마을공격을 명령하지 않았고 12월 23일에서 2개 소대에게 달산, 석봉산, 달비산을 수색한 후 12월 24일 17:00시에서 18:00시 사이에 귀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증거 : 남한군을 현장으로 인도했던 민간인 2명의 증언, 부상자 2명의 증언, 황형사의 증언

사망자명단

	5세미만	10세미만	15세미만	20세미만	30세	30세이상	51세이상	미상	합계
남자	7	2	2	9	5	8	10	0	43
여자	2	2	8	2	8	10	6	5	43
합계	9	4	10	11	13	18	16	5	86

● 제주4·3 - 박찬식 연구실장  
(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1.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어 항쟁 발생 51년 만에 그 해결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었다. 이 글은 「4·3특별법」 제정의 여러 가지 의미와 그 과제를 검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4·3특별법」이 4·3의 국내적 해결을 제대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주공동체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고,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그 명예회복의 실제적인 조치는 피해당사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과 전체 제주공동체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원칙 위에 궁극적으로 제주공동체의 평화적 역할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적 해결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즉, 미국정부의 역할 규명과 사과, 그리고 유엔에서의 조사와 발표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연결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여진다. 「4·3특별법」의 제정으로 위의 네 가지 장·단기 정책과제를 실현해 나갈 때 그 법은 명실상부한 4·3 문제의 역사적 해결을 이루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이 글은 우선적으로 진상규명의 근거로서 법안이 제정된 과정과 그 내용 및 과제를 다루고, 둘째로 명예회복의 근거로서 「4·3특별법」의 내용과 과제를 다루며, 셋째 배상과 보상의 근거로서의 「4·3특별법」의 내용과 과제를 제기하며, 넷째 「4·3특별법」이 평화추구의 원칙을 실현하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국제적 해결의 근거로서의 「4·3특별법」의 역할과 보완과제를 제기해 나가는 순서로 구성하고자 한다.

2. 진상규명의 근거로서의 「4·3특별법」

1) 진상규명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3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항쟁과 대수난 발생 이후 지속적인 염원이자 대의였던 만큼 「4·3특별법」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4·3의 발생 이후 진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일부의 학자와 학생운동권에서 시작되어

87년 대선 공약으로 제기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재야운동권으로 확대되면서 89년 제주4·3연구소의 창립과 89년 언론사의 기획취재, 93년 제주도의회의 4·3특위 구성과 「4·3피해보고서」의 진상 파악, 99년 「4·3특별법」의 통과로 이어지는 15년여의 노력의 결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3특별법」 1조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 이러한 진상규명의 작업을 담당할 주체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하여 총리하에 둔다고 명시하고, 이 20인 이내 위원들의 위원회가 실제적인 작업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20인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軍史)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어 도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다시금 원래 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시행령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4·3진상규명 작업의 시작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2) 진상규명의 과제

진상규명의 현실적 과제는 「위원회」가 진상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 같다. 「위원회」가 2년 정도의 기간 내에 작업을 해내야 하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작업을 우선은 점검하고 수합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피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4·3연구소나 언론기관의 채록에 근거한 기록을 검토하고, 정부의 재판기록과 군사작전 등에 관한 기록,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정리가 첫번째의 작업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진상에 접근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해석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4·3의 진상에 토대를 둔 성격의 규명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의 성격이 복합적인 만큼 그 불리는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산)폭동, 인민무장투쟁, (민중)항쟁, 사건, 사태, 제주항쟁, 세계사적 사건, 4·3 등이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 지금 현재 4·3에 쓰이고 있는 명칭은 사건이라고 쓰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명칭이 사실에 근접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하여 나름대로의 안을 내놓아야 하리라 보여진다.

다음으로 해석을 할 것은 4·3을 둘러싼 지역적, 민족적,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성격 규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 민족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4·3의 성격과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다른 항쟁과

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4·3의 역사적 자리를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것이 진상규명과 연관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명예회복의 근거로서의 「4·3특별법」과 과제

#### 1) 명예회복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역사적 사실의 명예회복은 원래의 자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3의 경우 명예회복은 빨갱이 섬 그리고 빨갱이들의 무모하고도 사악한 폭동이거나 반란이었다는 역사의 왜곡을 걷어내고, 그 속에 묻혀버린 섬사람들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이 차지해야 할 제자리를 찾게 해줄 때 가능해진다. 4·3에 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부터가 명예회복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작업은 진상규명과 그 궤를 함께 할 것이다. 제1조, 2조, 3조 및 4조가 공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은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 2) 명예회복의 정책과제

명예회복의 정책과제는 두 가지로 논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역사적 위상을 정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4·3의 역사적 위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전자가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을 짓눌러온 용공 혐의를 걷어내는 것인데,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5·18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해야 하는 일과 법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의 등재를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후자는 제주도민 스스로가 제주도민의 명예를 재정립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민의 정신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제주도민들은 공동체 내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공동체정신으로 어려운 삶을 헤쳐 나갔다면, 대외적으로는 해양지역을 개척하여 상거래나 무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교류 및 개척을 해온 개척정신을 결합시키면서 역사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4·3으로 그 정신 자체가 붕괴되고 변질되는 경험을 해왔다. 도민 스스로가 4·3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이러한 정신의 회복을 통해 섬의 관용성의 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일상적으로 공동체에 내면화시켜 나가고, 대내외적으로 문명적 방향으로 성숙시켜 나갈 때 가능해 질 것이라 여겨진다.

### 4. 배상·보상의 근거로서의 「4·3특별법」과 과제

#### 1) 배상·보상의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3특별법」에는 배상과 보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에 관한 조항을 두어 희생자 중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지원금이 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작업과 동시에 그 조항이 추가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2) 배상·보상의 정책과제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998년 제주도가 제시한 과제는 제주도 전체의 명예회복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보상이었다. 그러나 개인 희생자 진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함이 명확하므로,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공동체에 대한 보상과 희생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는 항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 5.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4·3특별법」과 과제

#### 1)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3특별법」의 내용에 평화추구의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은 제8조 위령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는 4·3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위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항 역시 「제주도개발과 보전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된 평화의 섬 지정이라는 항목과 연결시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야 한다.

#### 2) 평화추구의 정책과제

평화추구의 단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규정한 평화의 섬으로의 지정이다. 이 내용과 연결시켜 「4·3특별법」의 내용 중 세계평화공원과 평화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켜, 위령제를 지내는 공원 이외에 제주4·3을 기념하는 세계평화공원을 건립하고, 이 속에 4·3평화인권재단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과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국제적 해결의 근거로서의 「4·3특별법」과 과제

#### 1) 국제적 해결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제주4·3이 국제적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항목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조

항 중 1항인데,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이것이다. 이는 4·3이 발생한 시기가 미군정 시대인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미군정이 끝나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1948년 8월 15일까지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일 뿐더러, 1948년 5월 10일 단선 거부사태가 포함되고 있음까지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미군정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제주4·3과 통일정부 구성과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2) 국제적 해결의 과제

「4·3특별법」 제2조의 1항에서 명시함으로써, 「4·3특별법」의 국내적 해결 다음으로 국제적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이는 한반도 내에서 통일정부 구성 움직임과 남한단독정부 구성이라는 민족적 맥락, 그리고 이 시기의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하는 과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의 마지막은 유엔을 통해 4·3의 진상규명이 정리되어 국제적으로 역사적 명예회복으로 복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7. 맺는 말

이 글은 「4·3특별법」의 내용을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평화추구, 그리고 국제적 해결의 근거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그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정책처방에 중심을 두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도록 하자.

「4·3특별법」의 제정은 4·3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법을 근거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여 있다. 우선 특별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4·3의 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앞으로 2년 간 진상조사를 거쳐서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지면 4·3의 진상은 공식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지게 될 「위원회」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4·3을 체험한 생존자들에 대한 증언 수집과 더불어, 피해 및 희생자들의 신고를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국외(특히 일본)로 넓혀서 광범위하게 접수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는

4·3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경찰 당국, 정부기록보존소, 군 당국, 법원 및 검찰)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미국 내 소장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수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평가가 수행되어 정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 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희생자에 대한 배상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법적 조치와 추가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체적 보상의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 : 평화공원 설립. 자료관의 건립. 각 지역에 위령탑 (혹은 위령비) 건립, 공동묘역 조성
- (2) 특별법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의 제정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개별배상, 재심을 통한 사면 및 복권과 그에 상응한 피해보상, 연좌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 (3) 양민 학살자에 대한 책임 추궁
- (4) 유골 발굴 및 수습
- (5) 평화인권재단 설립
- (6) 재일동포 관련자의 무조건 입국 허가
- (7)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
- (8) 추념일 제정
- (9) 중고교 교과서 개정
- (10) 4·3관련 유적 보전 및 조사·발굴

특히 미국이 이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측 자료의 수집·분석과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양심과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할 것이 분명하다. 냉전체제가 빚어낸 사건을 그 당사자가 풀어내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다. 다음으로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민들은 과거의 굴종과 비굴함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통하여 새로운 천년 평화의 섬을 일구어 나가는 데 모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4·3특별법은 모든 제주도민의 성과이기 때문에 법의 시행 또한 공정·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메카로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를 찾는 세계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양민학살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뚜렷이 각인될 것이다. 이는 4·3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法律 第6,117號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第1條(目的) 이 법은 濟州4·3事件의 真相을 糾明하고 이 事件과 관련된 犧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民主發展 및 國民和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濟州4·3事件"이라 함은 1947年 3月 1日을 기점으로 하여 1948年 4月 3日 발생한 騷擾事態 및 1954年 9月 21日까지 濟州道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한다.
2. "犧牲者"라 함은 濟州4·3事件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後遺障痼가 남아있는 者로서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濟州4·3事件의 犧牲者로 결정된 者를 말한다.
3. "遺族"이라 함은 犧牲者의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直系 尊卑屬을 말한다. 다만,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第3條(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 濟州4·3事件의 真相을 糾明하고 이 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濟州4·3事件 真相調查를 위한 國內의 관련 資料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사항
2.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결정에 관한 사항
3. 犧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4. 真相調查報告書 작성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사항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사항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立場表明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戶籍登載에 관한 사항
8. 기타 真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① 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처리한다.

1. 犧牲者와 遺族의 被害申告 접수에 관한 사항
2. 被害申告에 대한 調査에 관한 사항
3.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が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5條(不利益 處遇 禁止등) ① 누구든지 濟州4·3事件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證言할 수 있다.

② 犧牲者 및 그 遺族은 濟州4·3事件 犧牲者와 그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 ① 委員會는 그 구성을 마친날부터 2年 이내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 또는 實務委員會는 第1項의 資料蒐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關係機關 또는 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關聯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發掘 및 閱覽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第2項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資料를 外國에서 보관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國家의 政府와 성실히 交涉하여야 한다.

第7條(真相調查 報告書 작성) 委員會는 第6條第1項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月 이내 濟州4·3事件真相調查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真相調查報告書 작성

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濟州4·3事件真相調查報告書作成企劃團을 設置하여 운영할 수 있다.

第8條(慰靈事業) 政府는 濟州4·3事件 犠牲者를 慰靈하고 歷史的 의미를 되새겨 平和와 人權을 위한 教育의 場으로 活用하며 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費用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慰靈墓域 造成
2. 慰靈塔 建立
3. 4·3使料館 建立
4. 慰靈公園 造成
5. 기타 慰靈關聯事業

第9條(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 ① 政府는 犠牲者중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상시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게 治療와 介護 및 補助裝具 購入에 소요되는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②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③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の 지급범위와 금액의 算定 및 支給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犠牲者와 그 遺族의 申告處 設置 및 公告) 委員會는 이 法 施行日 부터 30日 이내에 大韓民國 在外公館에 犠牲者와 그 遺族의 濟州4·3 事件 관련 被害 申告를 접수받기 위한 申告處의 設置를 요청하고, 設置된 申告處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1條(戶籍登載) 濟州4·3事件 당시 戶籍簿 燒失로 戶籍登載가 漏落되거나 戶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大法院 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戶籍에 登載하거나 戶籍의 기재를 正正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공포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성명서

### -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한국전쟁 발발 반세기를 앞둔 오늘, 남북의 화해를 향한 역사적 길목에 선 우리는 저 끔찍한 학살을 죽음과 은폐, 외면과 망각의 어둠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국전쟁은 20세기 그 어떤 전쟁보다도 민간인 희생이 많은 “더러운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이전 수 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참화를 비롯해서, 전쟁발발 직후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학살, 노근리사건 등 미군에 의한 학살, 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 국군과 미군에 의한 이북 주민들에 대한 학살,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남북이 각각 자기 지역을 회복한 뒤 ‘부역자’ 처단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살 등 한국전쟁에 얽힌 학살의 목록은 끝이 없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살을 모면한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악령과 빨갱이 가족이라는 명예를 안은 채 살아야만 했다. 1960년 4월혁명 직후, 유가족들은 방치되어 있던 유골을 모아 무덤을 만들고 위령비와 작은 꽃밭을 세웠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애써 모은 증거자료는 조직적으로 인멸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던 유족들은 이적행위의 명목으로 투옥되었고 무덤은 파헤쳐졌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은 그들을 두 번, 세 번 학살했다. 그리고 군부독재 30년, 극우반공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기억마저 빼앗겼다.

참혹한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새 생명이 움트듯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각지의 사회단체, 뜻있는 인사와 유족들이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과 피학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주 4.3사건과 거창 등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고양 금정굴과 지리산 외공마을 등에서는 발굴이 이루어져 수 백구의 유골이 수습되기도 했다. 또 노근리의 경우는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피해당사자와 그 유족들의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일일 뿐 아니라, 우리와 후대들에게 더 이상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생생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학살의 진상규명을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쓸데없는 일 혹은 유가족들만의 한풀이로 보려는 경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군사독재가 만들어낸 서슬 푸른 공포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피해자들의 피어린 절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무관심은 우리를 학살의 은폐에 소극적인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학살과 학살의 은폐는 또 다른 학살을 낳는다. 한국전쟁 이후의 현대사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아니

죽어야만 한다며 무고한 민간인 수십만을 학살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늘까지 가져 왔다.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 선량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참히 학살한 80년 광주에서의 만행, 그리고 술한 의문사와 고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재 정부는 인권선진국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십만의 원혼이 하늘을 뒤덮고, 수많은 유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처지에 인권선진국이란 가당치 않은 구호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고 말한다. 그러나 정녕 끔찍한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바로 유가족이지 않는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통일로 가는 새 길을 열고 있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를 서로 치유해 주면서, 상호간에 깊은 위로와 사과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 사이의 화해에 못지 않게 분단과 전쟁의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반공이란 명목 하에 자행된 수많은 학살의 상처 역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죽음의 골짜기에 산산이 흩어져 버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모인 우리는, 그 어떤 명분도, 상황논리도 민간인 학살이라는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정부와 각계각층에 호소한다.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그간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공포와 체념을 버리고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결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준비위원회)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불행한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픈 것은 도대체 왜, 누구의 명령으로 그랬는가입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죽은 자들에게 사죄하고, 유가족들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잠시만이라도 참혹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행했던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디 참혹한 역사라고, 나의 불행이 아니었다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모일 때, 우리의 후대들은 그 불행했던 과거를 해원과 상생의 역사로 풀어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학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부디 이 땅의 풀 한 포기 함부로 밟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가족들을 가진 이들에게는 온 국토가 그들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촉구한다.**

미국은 노근리 사건을 비롯하여 미국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모든 지역에 대해 한국정부, 피해자 가족들과 공동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하라!

**우리는 정부에 대해 촉구한다.**

1.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즉각 피해 유가족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발족시켜라!
1. 정부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바탕하여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1. 정부는 피학살자들이 암매장된 지점들을 즉각 발굴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묘역을 만들고, 위령탑과 추모관을 건립하라!
1.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진실이 밝혀진 부분은 교과서에 반영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를 촉구한다.

2000년 6월 2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대표 강 정 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채 의 진 · 서 영 선

강화희생자유족회 ·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 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 · 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 · 단양피개굴희생대책위원회 ·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 ·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 · 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 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 · 지리산의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 화순군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 ·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 ● 유족회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 주소록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0662-651-1530, fax 0662-654-7749,  
yosuicc@hanmail.net, http://www.yosuicc.or.kr
2. 제주4·3 연구소  
064-756-4325  
☎ 690-031 제주시 삼도1동 142-3 제주중앙신협 3층  
제주4.3 도민연대, 제주4.3 행방불명인유족회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 범국대책위원회  
02-757-4843, fax 02-756-4727, http://www.cheju43.org,
3. 산청함양양민희생자유족회 회장 정재원  
02-2275-2975~6, fax 02-2275-2977  
0596-973-4551, fax 0596-973-9794  
☎ 666-830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270-14번지
4. 고양 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창복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회장 서병규  
0344-938-4683, 019-696-4683  
총무 마임순 02-546-5716, fax 02-304-2345  
고양시민회 사무총장 최태봉 0344-906-7070
5. 경북 문경양민학살피해자유족회 대표 채의진  
0582-541-9039
6.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정근욱  
☎ 525-880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월야면민 복지회관  
0615-323-1001, fax 0615-320-3465  
함평군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군의회 0615-324-1807
7.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254-697 복진국 부장

-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 정준섭 042-582-8317
8. 경산 평산동코발트광산피해자유족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운암 02-491-5585  
간사 이정우
  9. 나주동창교 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 추진위원회 회장 이상계 나주시 의원  
0613-332-22639(의원사무실)  
0613-330-8546, 0613-332-2265, fax 0613-332-2402
  10. 경기도 강화희생자유족회 대표 서영선  
02-695-0158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610-9 삼진 B동 103호
  12. 전북 익산역오폭희생자유족회  
유족회 회장 김대규 원광대 교수 0653-850-6367(0)  
부회장 이창근 0653-831-6581  
이리역오폭사건시민단체대책위원회  
익산시민센터 0653-841-3025  
전북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간사 조광수 017-617-2296,  
jbpeople@popmail.com  
익산시청상황실피해접수 0653-840-3231
  13.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느티마을 (괴개굴 사건)  
괴개굴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조태원 0444-423-7094  
김주호 0444-423-7459  
자료제공-향토사학자, 시인 故 우계홍
  1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송라면 광천리, 청하면 이가리  
북송리 미군비행기폭격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허맹구
  15.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송골계곡  
미군함정 오인폭격 희생자유족대책위원회 회장 최일출
  16. 전남 화순군 양민학살 진상조사위원회  
화순군의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김성인 위원  
0612-374-7007, 0612-373-0985



☎ 519-8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의회

1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학살사건

현동주 0346-595-757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570-14 세륜빌리지 7동 302호

18. 경기도 파주시 교화면 양민학살

파주시민회 최근용 사무국장 0348-946-7600

19. 지리산 외공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주사랑청년회 회장 김영이

0591-761-1122, fax 0591-761-1123 jjminju@hanmail.net

☎ 660-321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50 진주사랑청년회

20. 여수남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대표 이춘송

21. 경남 산청군 시천, 삼장 양민학살유족회

회장 정맹근

산청군의회 서봉석 의원 0596-973-7498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대 표

강정구(동국대)

구성원

강창일(배재대), 김삼웅(대한매일), 김동춘(성공회대), 조용환(변호사),  
조시현(성신여대), 한홍구(성공회대), 정근식(전남대), 김익한(명지대),  
정운현(대한매일), 정희상(시사저널), 하종문(한신대), 박찬운(변호사),  
장완익(변호사), 김순태(한국방통대), 차미경(국제민주연대)

모임경과보고

올해 2월말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주최 : 한국인권재단)에서 전쟁 중 민간인학살에 대해 관심 있는 몇 분이 자리를 함께 한 후 강정구, 강창일 교수를 중심으로 좀더 본격적인 이 문제의 해결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4월초에 관심있는 학계의 연구자, 언론인, 인권운동가, 변호사 등 몇 분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과 지역의 유족회 및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차 모임에서는 모임의 명칭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으로 결정하고, 모임의 대표를 강정구 교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특별법제정 등에 있어 보다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임에서는 6월 25일 한국전쟁 50주년에 즈음하여 학살문제의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지역 유족회의 연대와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재촉코자 각 지역의 유족회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수 차례의 모임에서 지역 유족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 유족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직구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 채의진, 서영선)를 결성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인학살에 대한 학제간 연구조사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